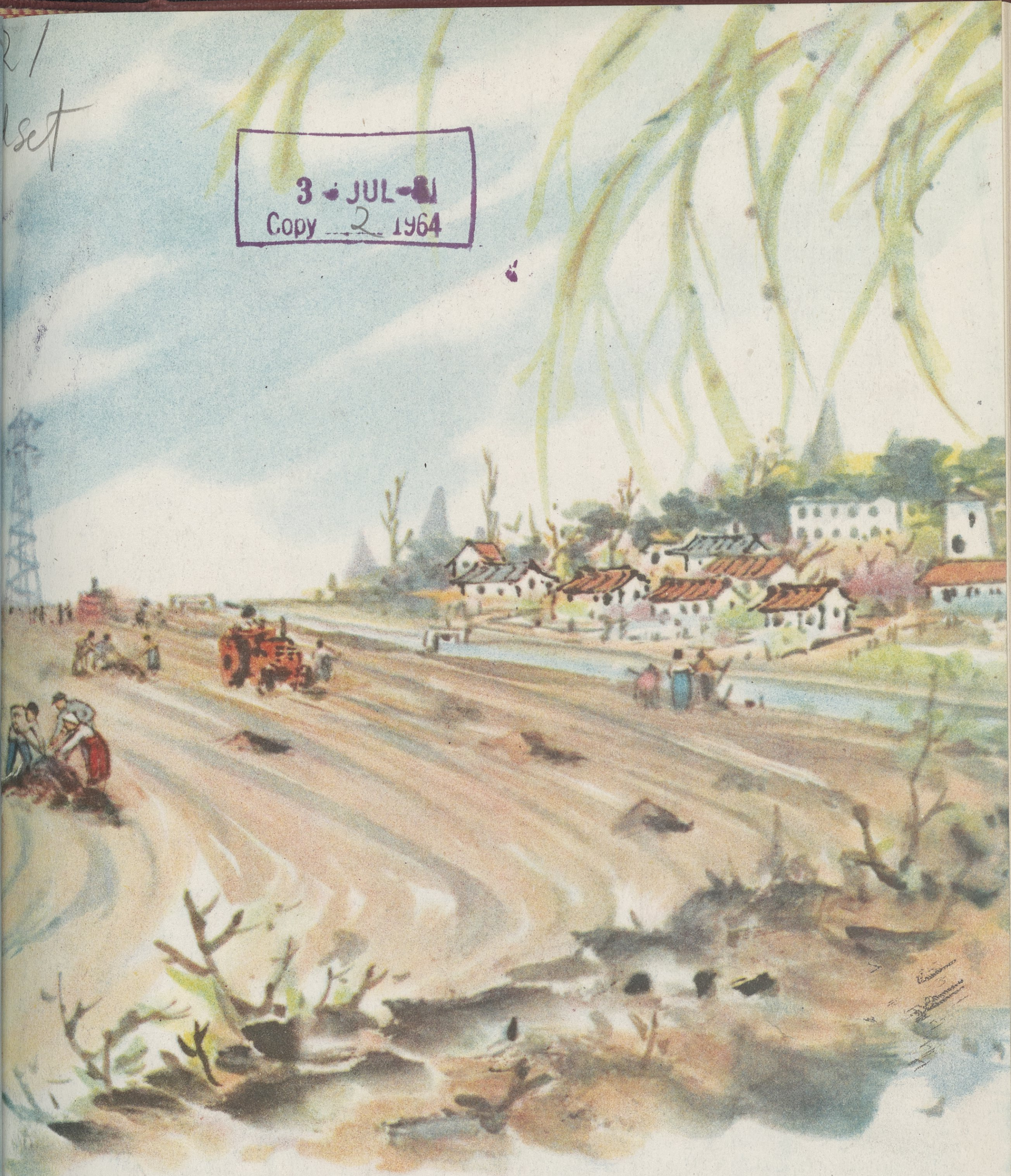


청년생활

3

1963



하성 광산 서부갱 신 형권 채광 작업반원들은 인민 경제의 첫 공정을 담당한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착암기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청년생활

1963. 3호 (162)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표지 1면: 봄을 맞은 전야에 농사'일이 분망하다. 그림, 유 충상

권두언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강령적 과업

우리 나라 청년들의 생활과 민청 사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갔다.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는 우리 당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제1차 당대표자 회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가 비상히 고조된 환경 속에서 소집되였다. 대회는 제1차 5개년 계획 실행에 들어 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 앞에 제기된 전투적 과업을 토의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는 대회에 친히 참가하시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청년들의 과업에 대하여》의 력사적 연설을 하시였다. 수상 동지는 이 연설에서 전체 청년들이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자기 앞에 나선 모든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로력 투쟁에 앞장서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선진 기술을 보급하는 데서 선봉적 역할을 할 데 대하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나라의 문화 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선도자가 될 데 대하여 그리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고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 대렬을 부단히 보충하는 당의 후비대의 역할을 빛나게 수행할 데 대하여 간곡하고도 구체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실로 김 일성 동지의 이 력사적 연설은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있어서 민청 단체들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영예로운 전투적 임무를 명시하여 주며 전체 청년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배우며 생활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강령적 교시이다.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가 있은 후 지난 5년간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은 수상 동지의 교시를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고 그를 자기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구현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며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제1차 5개년 계획을 기한 전에 초과 완수한 위대한 승리 속에는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로 무장하고 그를 견결히 실천한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의 로력적 위훈이 깃들어 있다.

청년들은 나라의 연료 동력 기지 창설과 금속 및 기계 제작 공업 발전을 위한 건설 공사들에서, 수산업의 발전과 민주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대도시 건설과 비날론 공장, 청진,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건설 그리고 농촌 경리의 수리화와 10만 정보의 과수원 확장 등 대자연 개조 사업에서 항상 힘들고 어렵고 긴요한 부문을 솔선 담당하여 혁신을 일으켰다.

청년들 속에서는 또한 선진 과학 기술을 습득하며 기술의 요새를 정복하기 위한 일대 행군이 전개되였다.

청년들은 각종 기술 교양망에 광범히 망라되여 기술 학습을 완강하게 전개하고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였으며 기술 혁신에서 보수주의, 신비주의를 불사르며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의 봉화를 높이 추켜 들었다.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청년들의 정신 도덕 생활에서도 큰 전변이 일어 났다.

청년들 속에서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학습이 강화되고 혁명 전통 교양이 강화됨으로써 그들의 계급적 각성과 혁명적 열성이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당적 사상 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전체 청년들은 공산주의 위업에 헌신 분투하려는 일편 단심으로 우리 당 주위에 튼튼히 단결되여 있으며 그들 속에서는 세인을 격동케 하는 아름다운 소행들과 로력적 위훈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들이 달성한 이 모든 성과는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 연설의 정당성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여실히 확증하여 주고 있다.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은 7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도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의 모든 사업과 활동의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오늘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 앞에는 우리 당의 령도 밑에 7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하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영예롭고도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조선 로동당 제4차 대회가 민청 단체 앞에 제기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함으로써 지, 덕, 체가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준비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의 진수를 더욱 심오히 파악하고 그를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기 앞에 제기된 영예로운 과업을 보다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청년들은 7개년 계획 수행에서도 항상 어렵고 힘들고 긴요한 모퉁이를 담당하여 당 정책을 이악하게 관철하는 돌격 부대가 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청년들은 항상 어떠한 일에서나 두려움을 모르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두에 서야 하며 미래의 주인답게 새것을 창조하며 낡은 것을 버리는 데서 용감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오늘 청년들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큰 력량을 이루고 있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청년들의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들은 기술과 기능상 면에서도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는 바다도 가르고 태산도 허물만한 위대한 힘이 있으며 그들은 용감하고 대담하고 혁명적 기개가 높다.

이 모든 사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들의 활동 여하가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은 청년들에게 7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로력 전선에서도 앞장에서서 자기의 온갖 열성을 남김 없이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당과 수상 동지의 두터운 신뢰와 높은 기대의 표시이다.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선다는 것은 인민 경제의 주동적 부문과 가장 힘들고 어렵고 긴요한 고리에 적극 진출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당의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며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기술 혁신과 절약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업 부문 내 청년들은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금년도 생산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당면한 기술 문건을 선행시키며 기계 설비들을 정비하는 등 모든 생산 활동에서 모범이 되며 계획 작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생산 지도 체계, 자재 공급 체계, 후방 공급 체계를 확립하며 협동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특히 금년도의 계획 수행에서 인민 경제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농촌 진지를 공고히 하고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서 이 부문 사업을 혁신시키는데 온갖 지혜와 창조적 재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전면적 기술 혁명—이것은 7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기본 방도이며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되고 힘겨운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숭고한 혁명 위업이다.

김 일성 동지는 **《누가 기술 발전에서 선봉으로 되여야 하겠는가? 그것은 새것에 민감하며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보수주의와 투쟁하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

입하며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습득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청년들이 적어도 한 가지씩의 기술을 소유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에 정통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기술 혁명의 선봉 투사로서의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선진 과학 기술 습득을 위한 학습을 완강히 전개하여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 더욱 정통하며 최단 기간 내에 모든 청년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들은 자력 갱생의 원칙에 확고히 서서 보수주의, 소극성을 타파하고 창의 고안 발명 및 합리화안 등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조직 전개하며 없는 것을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을 만들어 내며 소재를 극력 아껴 쓰며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전환시키는 투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청년 교양의 내용과 방도를 명시하시면서 특히 전체 청년들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강조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인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전취물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원쑤들이 침해할 수 없도록 튼튼히 수호하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착취 제도의 본질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하며 적아를 똑똑히 구분하고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 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자기의 혁명적 계급 의식을 더욱 높임으로써만 착취 계급과 착취 제도를 증오하며 그것을 복구하려는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투쟁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조국의 강산과 자기 향토에 대한 애착심, 자기의 애국적 혁명 전통과 문화 유산에 대한 민족적 긍지감에서 표현된다.

김 일성 동지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전체 청년들은 찬란한 력사와 고귀한 혁명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에서 사는 영예와 민족적 긍지, 자부심을 간직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강산과 향토를 더욱 사랑하고 그것을 행복한 락원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선조들이 남겨 놓은 훌륭한 문화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특히 우리 인민의 가장 고귀한 정신적 재부인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며 그를 자기의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우리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 당 정책을 체득하지 않고서는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과 공산주의적 수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 당 정책을 모르고서는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로 될 수 없으며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어느 부문에서 일하든, 무엇을 전문으로 하든간에 전체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여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시였다.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 학습을 반드시 우리 당 정책과 결부하여 연구하며 그것을 교리로서가 아니라 우리 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무기로 체득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도덕 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는 미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 되여 있고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매우 복잡하고 긴장된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으며 적들은 우리 내부에 각종 부르죠아 이데오로기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발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려는 수정주의와 양풍을 비롯한 온갖 부르죠아 사상과 안일성, 해이성, 권태증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정신을 본받아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로동을 사랑하고 근면하게 일하며 검박하게 사는 혁명적 생활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은 자기의 문화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풍부한 정서의 소유자로 되며 나라의 문화 혁명 수행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모든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기 위하여 민청 단체들은 자기 대렬을 더욱 튼튼히 결속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며 전체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이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당이 제기하는 어떠한 임무도 끝까지 관철해 나가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제 4 차 당 대회가 민청 단체 앞에 준 강령적 과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계속 깊이 학습하며 그의 심오한 내용을 철저히 체득함으로써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빛나게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구로리'벌의 억울했던 과거



김 병 익

경의선 심촌역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내려 서쪽으로 나지막한 고개를 하나 넘어 골짜기를 쭉 빠져 내려 가느라면 바로 재령강 하류를 끼고 구로리'벌이 무연히 펼쳐져 있다.

왜정 때 이 구로리'벌로는 하루에도 몇 세대씩의 사람들이 괘상짝과 구럭 망태이를 지고 몰려 들었다. 그들은 일제와 지주들의 착취와 억압 속에 살다 못해 정든 고향을 버리고 살'길을 찾아 정처 없이 떠다니는 류랑 농민들이였다. 그 가운데는 양덕 맹산 화전민살이조차 견딜길 없이 이때저리 류랑하던 태렬이네 일가도 섞여 있었다.

이 구로리'벌에는 소위 지주 일가, 리 희섭, 종섭, 중섭이네 삼 형제네가 일가 성수한다는 이름으로 지어진 《삼성 농장》이 있었다. 막내 중섭이가 여기 농장주였다. 맏이 희섭이는 남포에서 큰 정미소를 경영하는 자본가이고 가운데치 종섭이는 서울에서 《경기도 평의원》으로서 일제의 충실한 앞잡이였다.

이자들이 여기《삼성 농장》을 꾸린 데는 까닭이 있었다. 본래 이 땅은 일본놈 자본가이며 지주인 《야스가와》란 놈이 1919년에 이 지방 농민들을 강제로 몰아내여 서해 조수를 막고 6,000 여 정보의 간석지 갈밭을 논으로 푼 것이였다. 이것을 이자들이 《야스가와》로부터 샀다.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염'기가 많아서 다른 데 토지처럼 당장 높은 도조를 매워 소작을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농장을 만드는 데는 그보다 더 큰 타산이 있었던 것이다. 우선 농장을 만들어 당장 수익을 보면서 많은 투자 없이 장차 이 벌을 옥답으로 만들어 영구히 농민들을 착취할 지반을 닦자는 것이였다. 그러자면 헐값으로 부려 먹을 많은 로력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이자는 여기에다 농장 간판을 붙여 놓고 농장에 들어 오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소문을 놓았다. 그리고는 일제 관청과 내통하고 구두지 산에서 생솔 나무를 텅텅 찍어다가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들을 수 많이 젛어 놓았다. 광솔마디도 채 다듬지 않고 젛은 헛간이였다.

그 날 그 날의 끼니를 이어 나갈 길 없는 류랑 농민들은 입이 원쑤가 되여 이곳에 찾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이자는 아주 《자선심》이나 베푸는 것처럼 모여 온 농민들에게 썩은 겉수수를 달구지로 실어다가 나누어 주었다. 이리하여 이 농장에 들어 오기만하면 벌써 그놈의 빚을 갚기 전에는 마음 대로 떠날수가 없도록 올가미에 얽어 놓았다.

농사라는 것은 매 집에 로력 수에 따라 논을 나누어 소작(타작)을 준다. 그러고 가을에 가서는 농사 젛은 사람들은 다치지도 못 하게 하고 모조리 베다가 농장 마당에 쌓아 놓는다. 탈곡은 공동으로 해서 북데기로부터 벼'짚까지 딱 절반 가르며 여러 가지 빚으로 빼앗기고 나면 축정 벼 가마니나 남는 집은 다행이고 거의가 빈 키짝을 들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어린 동생 넷을 부양해야 할 태렬에게는 하루도 펑안히 발편을 할 날이 없었다. 농장 토지 4,800 평을 얻은 태렬네 일가는 온 식구가 모두 이른 아침 새'별을 이고 들로 나갔고 저녁에는 동산의 달을 이고야 집에 돌아 왔다. 아침에는 벌써 첫 새벽에 일어나 겉수수를 그대로 덜덜 매'돌에 갈아 죽을 쑤어 먹고는 온 종일 허기진 배를 그러 쥐고 일했다.

그래도 먹을 것이 떨어져서 자루를 들고 그 썩은 수수 알이나마 타러가면 지주 앞잡이 농장 주임, 리 재이란 놈은 제 것을 공짜로나 퍼 주는 것처럼 눈깔을 부라리군 하였다.

《모두 식충이들만 모였구나, 무슨 쌀을 그렇게 헤피 먹느냐 말야 엉!》

《이게 뭐 거저 주는 거요? 이제 다 갚을 건데…》

태렬이는 참다 못 해 한 마디 쏘아 부쳤다.

태렬이는 벨이 꿈틀거리는 것 같아서는 당장 굶더라도 내동댕이 치고 달아 오고 싶었다. 그러나 자기가 먹을 것을 마련해 가지고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와 동생들을 생각하고는 꾹 참고 견디였다.

살아 나가자면 입에 풀칠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았다. 몸에 하다 못해 토스레 뚱거리라도 걸쳐야 하지 않겠는가! 들에 나다니는 태렬이도 단벌치기 무명 적삼 뿐이여서 이거나마 빨 때는 하루 일을 못 하고 방안에 들어 앉아 있어야 했다. 그러니 밭에 나다니지 않는 애들은 거의 벌거 벗겨 두다 싶이 하였다.

추석 명절을 앞둔 어느 가을 날이였다. 태렬이네가 벌판 수수밭 그늘 아래서 죽 양재기를 꺼내 들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농장 《지도원》한 녀석이 달아 왔다. 그 녀석은 그날 따라 싱글싱글 웃는낯으로

《태렬이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인데, 점심 참에 곧 농장 사무실에 들렸다 가라네.》

라고 하는 것이였다.

또 무슨 일인가고 태렬이는 술근술근 농장 사무실로 갔다. 마침 주인놈은 어디 가고 농장 서기장 김 광두가 웬 돈인지 은행에서 바로 나온 듯한 발각발각하는 10원 짜리 지폐를 세고 있었다. 지폐 묶음을 다 세고 나더니 그는 그 중에서 10원 짜리 두 장을 꺼내 놓으면서

《어보게 지주 나리께서 이 번 명절에 동생들 옷가지라도 해 입히게 하라고 념려해 주시는데…》라고 말하는 것이였다.

돈을 보니 반갑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돈을 받아 쓰면 후에 얼마나 내랄지 하는 걱정부터 앞서 얼른 손이 나가지를 않았다. 그러자 이 놈은

《자, 자네네 올해 농사도 괜찮게 됐는데 어서 받아 두게.》라고 말하는 것이였다.

태렬이는 생각하면 무슨 선심이나 쓰는 척 하는 놈들의 소행이 얄미웠지만 요새 며칠째 어머니께서 《변'돈이라도 좀 달래 보자꾸나, 저 애들을 노상 벗겨 두어서…》라고 하시던 말씀을 생각하니 버젹 거절할 수도 없었다. 태렬이는 내키지 않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논'벌로 돌아 왔다.

그 후에 알고보니 금년 농사께나 된 집에는 다 이렇게 명절을 쇠라고 하면서 얼마씩의 돈들을 대준 것이였다. 한 사람에게 일 이십원씩이지만 180 여 호나 되는 이 농장과 그러고 또 포남, 포북 일대 소작인들에게 준 빚이란 큰 것이였다. 리자는 보통 3분변 (1원에 하루에 3전)이였다. 1년 동안의 고리대에서 보는 리익만 해도 큰 것이였다.

드디여 가을이 돌아 왔다. 비록 신풀이 논이지만 봄, 여름 공들인 보람있어 벼 30 가마니에 수수 네 가마니를 수확하였다. 물론 농장 마당에 통채 베다 놓고 탈곡하였다.

탈곡 때면 의례히 농장 주임과 서기장이란 자가 마당에 책상을 내놓고 커다란 장부 책을 들고 나와 지휘한다. 그러면 십장들이 농사지은 본인은 꼼짝도 못 하게 하고 대평 저울을 걸고 다는 족족 소작인들을 시켜 자기네 창고에 들여다 쌓는다.

한편에서는 북데기를 절반씩 가른다. 그러고 또 벼'짚도 단으로 나눈다.

그 날도 태렬이는 그저 장부책을 든 서기장놈의 곁에 서서 줄곧 마지막 몇 가마니가 남겠는 가고 마음을 조이며 보고 서 있다.

그런데 알맹이 벼는 몽땅 들어 가지 않는가!

《아 서기장님 저렇게 하면 어찝니까?》

《이 사람아 아직 다 안됐어, 제할거야 다 제 해야지 않겠나!》

태렬이도 태렬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거의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저런, 저런》하고 억이 막혀 다른 말을 하지 못 했다.

《아니, 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다 제하고도 벼'가마니나 실히 남을 줄 알았는데요?

태렬이가 다가들며 장부책을 들여다 보려고 하니 서기장놈은 와락 성을 냈다.

《아, 이 사람아 자네거 공거야 빼앗는 줄 아나, 어서 다 보게.》라고 장부책을 던지듯 내말겼다.

《서기장님, 이건 뭡니까?》

태렬이는 가옥세, 지세, 지방 자치세 등 세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놀래여 물었다.

《이 사람, 자네, 세금을 안 물고 사나? 그야 외례히 자네가 물 것들인데 우리가 물려서 물어 주었으니 고맙다고나 할게지, 왜 이리 시끄럽게 구는거야 응?》

마침 이 때 마당'가를 지나던 지주 중섭이란 놈이 이들이 옥신 각신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한 듯 어깃어깃 다가 왔다.

《이 사람, 이 세상에 어디 공거 굴러 다니는거 있어? 세금을 대신 물어 준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지, 그러구 또 그 값에 리자를 물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그래 뭐 어쨌단 말인가! 응?》 지주놈은 이 번에는 제법 체면을 차리는듯 말끄리를 길게 울려 굶으며 태렬이를 힐끔 바라 보았다.

태렬이는 울컥 부화가 치밀어 당장 서기장이 앉은 책상 채 넝큼 들어 지주놈까지 몽땅 족쳐 팽개고 싶은 생각에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옆에서 팔소매를 잡는 바람에 그제야 제 정신에 돌아 왔다.

봄 내, 여름 내 온 가족이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며 피 땀 흘려 지은 농사가 이제 죽정벼 한 가마니에 수수 한 가마니가 남게 되였으니 생각해 보라! 이 어찌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 피땀을 갉아 먹어도 분수가 있지 종자 값마저 봄 시'가에다 리자를 붙여 받아 내고 비료 한 가마니에는 시'가보다 쌀 대두 팔 관씩을 더 받았고 썩은 겉수수 한 가마니에 벼 한 가마니, 소부린 값, 농기구 사용대, 심지어 탈곡기 세까지 받아 먹었다. 그러다 못해 이제는 일제가 짜내는 세금에다마저 리자를 붙여 먹으니 태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농사를 지어 놓고도 흰 쌀밥 한 번 제대로 어머니에게 대접하지 못 한 태렬이는 억울하였다. 그렇다고 이런 심정을 어디에 가서 호소하랴!

겨우 자기 몫으로 얻은 죽정 벼 한 가마니와 겉수수 한 가마니는 달반도 못 가서 다 없어지고 말았다. 다시 지주놈 한테서 쌀을 내다 먹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 놈은 쌀을 대주는 데는 조건이 있었다.

농장에는 아직도 지대가 높아서 밭으로 남아 있는 곳과 논이 되였다해도 높고 낮은 곳들이 많아서 이를 옥답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과 논정지 작업이 있었다. 바로 여기에 동원되는 조건 하에서만 겨울에도 썩은 쌀이나 겉수수 말박을 대주는 것이다.



이 로동은 그 때 말로 《하꼬뜨기》(평뜨기나 같은 말)라고 해서 한평씩 흙을 파내는데 그 임금이란 보잘 것 없는 것이였다. 장정 로력이 온 종일 뼈힘을 들여 일해야 25전 주었다. 녀자들이나 아이들은 온 종일 뼈가 휘도록 일해도 10전이나 15전 벌면 많이 버는 편이다. 이것 조차도 보름에 한 번씩 간조(로임의 셈 보는 것)를 보는데 애시 쌀값이니, 빚이니 한 것을 제하고 남아야만 돈 얼마씩이라도 내 준다. 그러니 번 돈이 남아서 타 보는 일이란 거의 없고 빚이 앉질러 가기가 일수였다.

일제 말기에 들어 서면서 지주의 착취 방법은 더 악랄해 갔다. 한편으로는 염기가 적어지고 수확이 거의 고루어진 논들은 《지정 제약》대로 소작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농장에서는 종전에 수확이 나는 대로 절반씩 나누던 《타작제》를 없애고 이제는 《평뜨기법》을 쓰기 시작했다.

《평뜨기》란 한 평의 수확을 미리 떠서 그 논의 면적에 따라 평균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말로는 그 논의 작황에 따라 공평하게 중간 쯤 된 곳에서 뜬다고 하지만 의례 잘된 곳에 가서 뜨는 것이였다. 그러니 소작인들은 의례히 이 《평뜨기》에 의해 나온 가상적 높은 수확고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또 빚 몫을 갚아야 했다.

날이 갈수록 빚은 늘어만 갔고 지주놈의 횡포는 더욱 심해 갔다. 지주놈은 아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집 문서를 소작인들에게 강제로 나누어 주고는 그 너절한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를 입쌀 스물 다섯말, 서른말씩 세를 놓아 뜯어 먹었다.

이놈은 소작인들에게 소도 사 주어 먹이게 했다.

소작인들은 이 소를 먹여 주고도 오히려 1년에 쌀 두 가마니씩을 지주에게 물어야 하였다.(소를 부린 값이라고)

왜놈들의 공출 제도는 해마다 심해가서 지주에게 빼앗기다 남은 죽정벼 가마니마저 얻어 먹을 것이 없어졌다.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서기와 함께 칼을 찬 순사놈들이 같이 달려 왔다. 놈들은 리에 나오면 의례히 지주놈 집이나 리재이란 놈의 집에 자리를 잡고 농민들을 불러댔다. 그리고는 다짜고짜로 내라고 을러대는 것이였다. 만약 놈들이 요구하는 수량을 제대로 내지 못 하면 무리매를 맞아야 하였다. 그러나 농민들도 그저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놈들이 제아무리 《군기 보호법》이요, 《치안 유지법》이요 하는 따위 악법들을 휘두르며 위협하여도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감정은 날로 높아져 갔다.

주인 집 논밭에 비료를 한곳에만 몰아 뿌려 벼를 쓰러지게 하는 일, 《평뜨기》 장소에서 농장 관리들과 격투가 일어 나는 일, 소작 중 과수원에서 과목을 도끼로 쳐 넘기는 일들이 그치지 않았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 사람들이 일제 경찰에 끌리워 가군 하였다.

이렇게 농민들을 억압 착취하면서도 리 중섭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자기의 땅을 넓히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온갖 비렬한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자는 자작농들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 간교한 술책을 썼다. 조상 때부터 물려 받은 땅마지기나 산판을 한 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빚을 대 주고는 리자를 엄청나게 불구어 나중에는 빚 값으로 땅이나 산을 빼앗았다. 이미 군청이나 경찰서, 재판소들과 내통하고 있어서 토지나 산을 억울히 빼앗기고도 일본놈 관청에 가 련고 한댔자 모두 허사였다.

그리고는 제놈들은 농민들이 한창 모내기와 추수에 바쁜 봄과 가을철이면 농민들의 피땀을 짜내 세워 놓은 놀이터에다 황주, 사리원, 남포 기생들을 불러다 놓고 춤과 노래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였다. 첩을 세넷씩 데리고 이렇게 호강하고 진탕쳐 먹고 지내도 그의 창고에는 해마다 농민들의 피땀으로 지어진 2만 4천 여 석의 곡식들이 들어 가 쌓이군 하였다. 그리하여 지주 리 중섭은 일제의 태평양 전쟁의 말기에는 비행기 두 대를 헌납하여 일제의 개로서 충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귀 영화도 오래는 가지 못했다.

해방 후 지주 리 중섭이는 이 고장에서 쫓겨났고 이 원한 많은 구료리'벌은 인민의 락원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재령 강가 벌날 지주놈의 놀이터였던 바로 그 곳에 오늘 날은 농민들의 흥겨운 농악 소리가 넓은 벌로 울려 퍼지고 리 태렬이네 일가도 오늘은 협동 농장의 품에 안겨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혁신의 대오, 전진의 나팔



전 집단이 한 사람 같이 굳게 단합되여 농사'일에 력량을 집중하고 기술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지난 해 농사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금년도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 관철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평원군 송석 협동 농장 제 3 천리마 작업반원들에 대한 이야기

모든 사업의 성과는 여기에서 출발된다

지난 2월 어느 날이였다.

작업반원들은 모두 분조별 경쟁을 뭇고 포전에서 객토 작업을 하고 있었다.

휴식 시간이 되였다. 이 때 한 근달 동무가 작업반원들 앞에 나섰다. 그는 며칠 전에 민청 조직으로부터 작업반원들 속에서 담화 사업을 진행할 분공을 받았던 것이다.

담화 제목은 《일제 때 지주는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하였는가?》 하는 것이였다. 그는 이 제목을 고향 마을의 실정과 밀접히 결부하면서 이야기하였다.

《여러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넓은 벌은 본래 지주 김 정주란 놈의 땅이였습니다. 그놈은 바로 저기 언덕 우에 높이 지은 3 층 석조 건물에 승냥이처럼 도사리고 앉아서 소작인들의 피땀을 사정 없이 빨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왜정 때 지주놈들이 어떠한 형태로 소작인들을 착취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끝으로 그는 옛날 지주놈들한테서 직접 학대 받고 착취 받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김 정필 아주머니가 먼첨 일어 섰다.

《…저는 그 때 10년나마 그놈의 몸'종으로 일했어요. 긴긴 여름날 그놈의 옆에서 부채질 한 번 잘못 하여도 매질이였구 그놈의 발 씻는 일이나 오강 부시는 시중을 잘 못 하여도 매질이였수다.

그 지주란 놈들은 어떻게도 소작인들을 되게 착취하는지 글쎄 죽은 말의 창자에서 꺼낸 보리쌀로 가루를 내여 작인들에게 꾸어 주고는 가을이 되면 새하얀 옥백미를 두곱씩 받아 먹었다우.》

그 다음에는 우 윤숙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 났다.

《…어찌 그 뿐이이겠수. 그놈은 후퇴 때 제 땅을 도로 찾겠다구 미국놈들의 등에 업혀 다시 이 고장에 기여 들어 고문 노릇을 했다우. 그러니서 우리 애 아버지랑 리 인민 위원장이랑 0여 명 애국자들을 학살했지유. 그 놈들은 김 장녀네 모녀를 산 채로 땅에다 생매장했고 김 룡숙 동무가 감옥 안에서 애기를 낳고 거무도 목이 말라 소금국이라도 좀 달라고 청하자 똥물을 메기기까지 했다우. 정말 생각할수록 이가 갈리우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작업반원들 속에서 계급적 원쑤에 대한 불 같은 증오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가슴 깊이 느끼게 하였으며 이 귀중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굳게 지켜야 하겠다는 자각을 한층 더 새차게 불러 일으켰다.

끝으로 민청 단체 위원장인 김 형준 동무가 말했다.

《…그런데 바로 그놈들이 아직도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의 사촉 하에 옛제도를 복귀하려고 망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 우리는 놈들이 다시는 얼씬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 앞에 부과된 혁명 임무들을 더욱 충실하게 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 농사도 더 잘 지어야 하겠습니다.》

모임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심장에 뜨거운 불을 지펴 놓았다. 이 날 작업반원들은 객토 작업에서 120 %의 성과를 올렸다.

이 천리마 작업반에서의 사상 교양 사업은 거의가 작업반과 생산 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포전에서 일하면서 짬짬이 혁명 전통 교양과 계급 교양 사업도 진행한다.

때때로 포전에서는 민청 총회와 민청 분조 회의들도 진행되며 청년 기동 선동대원들의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된다. 그 내용들은 언제나 당면한 영농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가령 여름철에 진행한 그들의 청년 기동 선동대 공연 종목을 보면 재담 《우리 분조 앞섰네》, 군무 《흥겨운 논'김매기》, 합창시 《퇴비'더미는 쌀'더미》 등 내용으로 엮어져 있다. 이러한 공연들은 언제나 생산에서 사람들의 열성을 불러 일으키며 작업 능률을 곱으로 오르게 한다.

작업장에 점심 때가 다가 온다. 이 때가 되면 초급 민청 단체 위원이며 이동 도서실 책임자인 김 영화 동무가 이동 도서함을 들고 온다.

그 이동 도서함의 한쪽 모서리에는 청년들의 《독서 경쟁 도표》가 붙어 있으며 다른 쪽 모서리에는 《신간 도서 안내서》가 붙어 있다.

청년들은 앞을 다투어 이동 도서함 앞에 모여 든다. 그들의 기호는 참으로 다양하다. 리론 서적, 기술 서적, 문예 서적 등…청년들은 제가끔 마음에 드는 책들을 빌려 가지고는 논'두렁에 앉아서 독서에 열중한다.

바로 이와 같은 독서 운동을 통하여 지난 해 민청원 한 근달 동무는 각종 서적들과 잡지를 132 권이나 읽었으며 길 광현 동무는 120 권, 리 춘자 동무는 125 권, 전체 작업반적으로는 1,800 여 권을 읽었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는 때때로 흥겨운 문화 오락 사업도 조직된다. 그들은 어깨를 겯고 군중 무용을 하며 새 노래들을 배운다. 지난 해에만 하여도 161 명의 작업반원들이 모두가 10 종목 이상의 군중 무용을 추게 되였고 12 곡목씩의 새 노래를 배웠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 작업반에서는 생산 현장을 거점으로 하는 사상 교양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랑만에 끓어 넘치고 청년들은 다방면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바로 모든 사업에서의 성과들은 이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새 인간들의 탄생

《자신이 앞섰으면 남을 도우라!》

이것은 이 곳 천리마 작업반원들과 청년들의 한결 같은 구호로 생활의 리념으로 되고 있다.

민청원 박 동무에게는 한때 우리 농촌의 휘황한 발전 전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생활에 안착되지 못 하고 있었다.

민청 단체는 그에 대한 개별 교양을 강화하기로 하고 그의 생활을 친부모처럼 하나하나 보살펴 주는 한편 그가 결혼할 문제가 제기되자 모두가 힘을 합쳐 그의 결혼식을 치루어 주었고 집까지 알뜰하게 손질하여 주었다. 또

한 그가 무척 기계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긍정적면을 포착하고 그에게 뜨락또르 운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백방의 조건도 지어 주었다. 그러나 박 동무는 계속 자기의 그릇된 생각을 고치지 못 하고 있었다. 심지어 갓 결혼한 안해와의 사이까지 화목하지 못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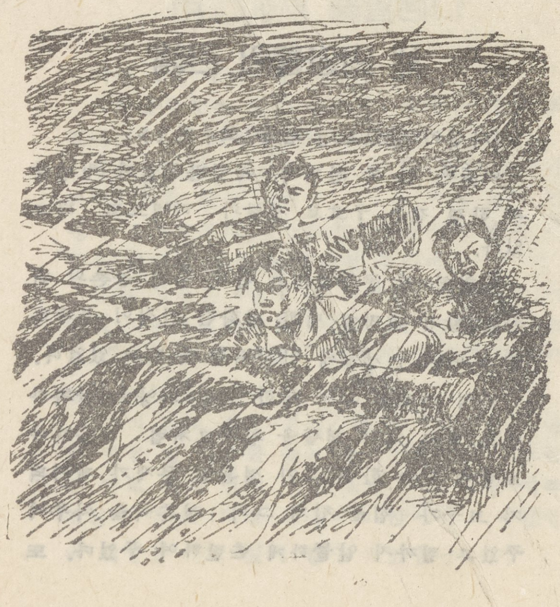
이 때 어떤 동무들은 더는 교양할 가망이 없으니 그를 다른 작업반에 보내자고도 하였고 또 혹독한 비판을 주어 그의 버릇을 떼야 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작업반 세포 위원장 동무는 이렇게 그들을 타일렀다.

《그래선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조 못 할 사람은 적대분자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를 아량 있게 포섭하고 긍정 교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민청 단체는 한층 더 그를 세심히 짜고 들어 교양하기로 하였다. 민청 조직에서 그를 도와 줄데 대한 분공을 받은 한 정옥 동무는 저녁마다 그 집에 찾아 가서 여러 가지 일을 제일 보듯 도와 주면서 그의 안해를 설복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게 언니에게 달렸어요. 그럴수록 언니는 남편을 잘 공대해야 해요.》

그의 노력은 보람을 내여 과연 얼마 후부터 박 동무의 안해는 더욱 살뜰히 남편을 대하게 되였다.



박 동무네 부모들이 지난 날 억울하게 살던 처지를 회상시키면서 그에게 오늘 날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참된 시대적 자각을 불러 일으키는 데 힘썼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소한 우점이라도 나타나면 제때에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군 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근 1년… 박 동무는 끝내 자기의 잘 못을 깨닫게 되였다.

그 후 박 동무는 차츰 자기 일에 충실하게 되였고 오늘은 넓은 문덕벌을 푹푹 갈아 제끼는 이름 난 뜨락또르 운전수로까지 되였다.

어찌 이런 일이 박 동무에게만 한하랴! 민청원들은 일터에서는 자기 동무들을 교양하였고 가정에 들어 가서는 부모와 안해들을 교양했으며 마을에서는 늙은이들을 교양하였다.

위 룡녀 할머니에게는 가끔 사소한 개인 리기주의적 표현이 있었다. 청년들은 저녁마다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서는 지난 날 할머니네가 지주'집 소작살이를 하던 일이며 이미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아들이 해방 후 열성적으로 사업하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꾸준한 해설 공작을 하였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회상기 《인민의 것이라면》을 여러 번 읽어 드렸다.

그 후 할머니는 지난 날의 자기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뉘우치고 농장일에서 가장 열성적인 사람으로 되였고 남을 도와 주는 일에도 발벗고 나섰다.

그는 오늘 마을 사람들로부터 《공산주의 할머니》라는 존칭을 받고 있다.

바로 이렇게 이 곳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앞선 사람은 뒤진 사람을 도와 주고 모르는 사람은 배워 주고 서로 밀고 이끌면서 161 명의 작업반원들이 한 가정 식구들처럼 굳게 단합되였다.

보다 아름다운 래일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일에서 정치 사업이 선행되고 사람들과의 사업이 잘 되니 생산에선들 어찌 혁신이 일어 나지 않겠는가.

사람들의 열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여름 장마 때였다. 금천 앞 개울'둑이 터질 위험이 있었다.

만약 그 둑이 터지는 날이면 벼가 한창 자라는 9만 여 평의 작업반 포전이 류실되는 판이였었다. 이 위급한 시각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체 작업반원들은 앞을 다투어 강'가로 모였다. 그리고는 폭우를 맞아 가며 일했다. 김 상준, 리 상근 등 민청원들은 자신의 위험도 잊고 사품치는 물'살에 뛰여 들어 헤염치면서 상류 쪽에서 떠내려 오는 통나무들을 건져 둑을 튼튼히 보강하였다. 늙은이, 젊은이, 남성들과 녀성들 할 것 없이 모두 달려 다녔다.

이렇게 단합된 력량 앞에서 산악을 허무는 대홍수도 머리를 숙였고 9만 여 평의 전장은 무서운 수재로부터 구원되였다.

이 곳의 모든 농산 작업은 매우 잘 되고 있다.

실례를 이 작업반에서의 로동 행정 사업에서 들어 보기로 하자.

종전까지는 늙은이들이나 부녀자들에게 일의 경중을 고려함이 없이 작업이 일률적으로 분공되군 하였다. 그러나 수상 동지의 청산리 교시를 거듭 학습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작업반 일'군들은 일이 잘 못 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작업반원들로 하여금 모내기 철 같은 때는 청년 분조, 로인 분조, 모성 분조들을 조직하였다. 그리고는 논 써레나 모를 꽂는 것과 같은 가장 어렵고 기민한 동작이 요구되는 작업에는 청년 분조원들을 배치하였고 로인들이나 모성 분조원들에게는 모뜨기 일 같은 비교적 쉬운 일을 분공주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로력 일수를 평가할 때도 군중들의 토의에 붙여 세심하게 평가함으로써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는 청년들 속에서의 기술 학습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작업반내에 새로운 기술 력량을 조성하기 위하여 리 수옥 동무를 비롯한 3 명의 민청원들을 고등 농업학교 통신반에 망라시켰고 32 명의 청년들로 기술 학습반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농기계 부문에 취미를 갖고 있는 10 여 명의 민청원들을 선발하여서는 뜨락또르 운전 기술을 배우도록 배치하였다.

결과 그들 속에서는 벌써 기수 검정 시험에서 15 명의 일부 과목 합격자들이 배출되였고 7 명의 청년들이 뜨락또르 운전 기술을 배우게 되였다.

《앞으로는 모든 청년들이 뜨락또르를 소말 구지 몰듯 하게 되지요.》

그들은 자랑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청년들은 비단 기술 학습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은 기술 학습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생산에서 활용한다. 지난 해에만 하더라도 그들은 농사에 각종 과학적 영농 방법을 도입하였다. 종자의 선택으로부터 랭상모 관리와 포전에 대한 과학적 시비 체계에 이르기까지 기술 학습반원들이 주동이 되였다. 그들은 일부 논들에서 여러가지 실험 끝에 2,4디를 적당한 분량으로 살포하여 그것을 성장 촉진제로 되게 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그들은 지난 해 정당 50 톤 이상의 자급 비료를 내고 공한지도 3,000 여 평이나 개간하였다. 그리하여 알곡 생산 과제를 101 %로 넘쳐 실행하였다.

그러나 혁신과 전진을 거듭하는 그들은 결코 이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늘보다 더 좋은 래일의 우리 조국, 그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 보며 그것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런 사람들에게 정지란 있을 수 없다.

그들은 지난 해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에서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금년도에는 지난 해 보다 102 %나 장성된 알곡 생산 과제를 또다시 125 % 이상으로 넘쳐 실행하기 위하여 궐기하였다.

그를 위한 우량 종자도 마련되였고 제반 소농기구들도 충분히 확보되였다.

질 좋은 자급 비료는 포전들에 듬뿍듬뿍 깔렸고 객토 작업장에서는 청년들의 노래 소리 드높다.

하여 1963년—이 해는 그들의 생활에서 또 하나의 기적들과 혁신들로 충만된 해로 되리라!

본사 기자 한 희만

용감한 청년 광부들



나라에 더 많은 광석을 보내자! 하성 광산 동부갱 5 호 굴착기 작업반 민청원들은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받들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서서 민청원의 기개를 떨치고 있다.

막장에서 열린 민청 회의

하성 광산 앞에는 금년도의 철저한 생산 준비를 위하여 9 갱을 재로 개발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였다. 9 갱을 재로 개발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는 금년도 광산 앞에 부과된 전투 임무 수행 여부를 좌우하는 열쇠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사에는 굴착기가 빠지는 수렁 구역이 많았고 수다한 난관이 예견되였다. 이 어렵고 영예로운 과업이 누구에게 부과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 광산의 관심사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어느 날 직장 당 위원장은 5 호 굴착기 작업반장 정 일웅 동무를 찾았다.

《동무네 작업반이 9 갱 공사를 맡아 주어야 하겠소.》

이 때 일웅 동무의 가슴은 이 영예로운 과업이 자기네 작업반에 부과된 것으로 하여 벅차 오름을 어찌는 수 없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민청원들은 환성을 질렀다.

그다음 날, 바야흐로 전투가 시작되는 막장에서는 민청 분조 회의가 열리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새'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토론은 불의에 부닥칠 수 있는 난관을 극복하며 기어코 제 기일 내에 전투 임무를 완수할 데 대한 문제를 두고 맹렬해졌다.

장 승관 동무는 무쇠 같은 팔뚝을 휘두르며 웨치다싶이 말했다.

《이 젊은 힘을 두었다가 어디다 쓰겠소, 열 밤이라도 새우며 극복해 갑시다.》

이번엔 매자에 심중한 우승국 동무가 일어섰다. 그는 모두가 집체적 지혜를 합쳐 한 사람이 한 건 이상씩 작업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창의 고안 운동을 전개하자고 호소하여 나섰다.

토론하는 모든 민청원들이 일치하게 항일 빨찌산의 공청원들처럼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의 앞장에 서서 싸울 결의들을 다지였다. 그리하여 예정된 시일 내에 공사를 완수하며 붉은 광부의 영예와 민청원의 기개를 떨치자고 하였다.

…민청원들의 비등된 열의 속에 전투는 개시되였다.

전투가 시작된지 사흘 째 되던 날이다. 계속 박토를 파며 나가든 굴착기는 그만 뜻하지 않았던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움이지 못하게 되였다. 막장의 심장이 멎은 셈이다. 그러나 그들은 락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변에 얼어 붙은 돌을 하나하나 망치로 까서 모아 들였고 낡은 목재나 가마니 할 것 없이 유휴 자재들을 날라다 수렁을 메우기 시작하였다.

2일 간이나 천신만고하여 굴착기를 구원해 내자 이 번에는 더 큰 난관이 가로막아 나섰다. 그것은 앞으로 전진할수록 수렁의 넓이는 20 메터도 넘었으며 만약 그것을 메우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사정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민청 분조 회의에서 결의한 그 대로 조금도 굴함 없이 백절불굴의 투지로 싸워 나갔다.

그들은 우선 경목으로 메울 작정을 하였으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5 리도 넘는 먼곳까지 가서 사장된 불로크를 바'줄로 매여 끌고 왔으며 이것도 모자라자 이 번엔 착암공들을 방조하면서 주변의 암석들을 폭파시켜 그 바위'돌로써 수렁을 메우었다.

이렇게 긴장된 투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였다. 우 승국 동무는 운반해 오는 돌들을 골고루 펴 놓고 그것을 다디 잠아 밟고 다니면서 일을 하자니 자연 일'손이 더디게 되였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 일이다. 공사를 제기간 내에 보장 못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승국 동무의 가슴에는 민청원으로서 자기의 결의를 실천 못 한다는 데서 오는 수치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런 매일수록 결단성과 용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더 생각할 여지도 없이 살얼음이 언 수렁 속에 덤벙 뛰여 들었다.

정갱이까지 잠기는 차디찬 물은 의복에 사정없이 배여 들었다. 하반신이 모지라 떨어지는 것 같았고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번개 같이 일'손을 다우쳤다. 그의 곁에서 같이 일하던 서 치준 동무도 두말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한참 후에 작업 현장으로 돌아 온 정 일웅 동무가 그들을 보고 나오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들은 들은 둥만둥하였다.

그는 곧 주변을 뛰여 다니며 나무를 모아 우등'불을 피웠다. 그리고는 그들을 억지 공자로 끌어 내다싶이 하여 우등'불 곁에 앉히고 몸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였다.

이렇게 책망은 하면서도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는 그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 보던 일웅 동무는 자기의 동복 상의를 벗어 우 승국 동무의 등을 감싸 주며 말했다.

《우등'불은 앞은 더워도 등은 시린 법이라니.》

승국 동무는 그 때야 빙긋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치준 동무를 꼭 껴안은 채 하면서 그의 등을 몸으로 감싸 주는 작업반장의 모습을 정다운 눈'길로 바라 보았다.

5호 굴착기의 민청원들은 바로 이렇게 불굴의 혁명 정신과 두터운 동지애를 발휘하면서 마침내 20 메터의 수렁 구역도 돌파하였고 자기들의 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9갱 개발을 예정 시일보다 2 일이나 앞당겨 완수하였다.

책임성을 두고…

자신들의 힘으로 개발한 갱에서 직접 철광석 생산에 들어 선 그들은 자기 계획을 매일매일 어김 없이 완수하면서 계속 혁신을 일으켰다. 그런데 정월 하순에 들어 서면서 그들에게는 새 전투 임무가 제기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운전하는 5호 굴착기가 교대당 200 톤 수준에서 일약 300 톤 수준으로 생산을 높이지 않고서는 광산 앞에 부과된 월 계획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였다. 이 해결책은 무엇보다도 설비 리용률을 높이는 데 있었다.

(어떻게 하면 기대의 가동률을 더 높일 것인가)

민청 분조장 리 운학 동무는 이런 생각으로 하여 밤잠조차 이룰 수 없었다. 그것은 영하 23도의 혹한 속에서 바가지의 개폐기까지 얼어 붙는 악조건에서 기대의 가동률을 높인다는 것은 실로 아름찬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고 당의 후비대인 우리 민청원들이 어찌 한 걸음인들 물러 설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그는 이 문제를 분조원들의 광범한 토의에 붙였다. 결과 굴착기의 매개 부문을 책임지는 기구 담당제를 실시하자는 합리적인 안이 나왔다. 즉 전기 부분, 하회 부분, 운전 부분 등 큰 부분으로부터 캬다베라, 관제기, 베아링, 절축볼트 등 개개의 부분과 부속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개인 담당제를 실시하며 정확한 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불의의 사고를 근절하자는 것이였다. 이것은 교대당 굴착기의 가동률을 1~2 시간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큰 예비를 찾아낸 셈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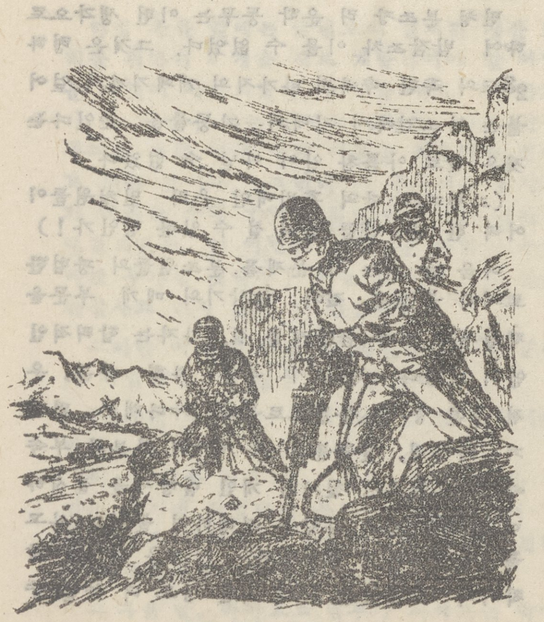
또한 민청원들은 한 사람 같이 동원되여 불과 2~3 일 사이에 모든 예비 부속품을 한조 이상씩 더 갖추게 되였고 제일 사고가 많은 주행 첸펀도 480 여 개나 모아 사고를 제때에 방지하게끔 하였다.

그야말로 전 집단이 불'덩어리처럼 되여 투쟁하였다. 대중의 힘과 지혜가 합치니 무궁무진한 예비가 동원되였다. 그들은 칼바람도 무릅쓰고 도로의 폭을 넓혀 자동차의 가동률도 높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생산된 철광석을 미처 운반하지 못 하여 생산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런 결과 그들은 한 교대에 300 톤 수준이 아니라 최고 578 톤까지 생산하는 기적을 올리였다. 이렇게 되니 민청원들의 사기는 더욱 충천하였고 그야말로 태산도 단숨에 허물어 낼듯 하였다.

어찌 여기에 그들 속에서 발현되는 가지가지의 미담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으랴!

민청 분조장 리 운학 동무는 젊은 운전수들의 선두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런데 정월도 거의 다 갈 무렵에 그는 웬 일인지 동무들과 함께 다니기를 피하는 것이였다. 처음에 동무들은 그가 무슨 볼 일이 있어 뒤떨어지겠지 하고 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작업반장인 일용 동무가 늦게 퇴



근하면서 길'가에서 다리를 몹시 절룩거리며 걸어 가는 운학 동무를 발견하였다. 그의 다리를 살펴 본 일용 동무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운학 동무는 도로를 확장할 때 큰 돌을 올리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만 발을 상하였던 것이다. 이 때 다리는 사정 없이 퉁퉁 부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동무들이 알면 어떻게 하나…)

운학 동무는 벅찬 로력 투쟁이 전개되는 대렬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남몰래 광산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갔더니 보름'동안 집에서 쉬면서 치료하라는 진단을 해 주었다. 그는 쉬는 것을 거절하고 남들이 있는 데서 아픈 다리를 애써 감추기 위하여 발을 천천히 옮겨 놓았으며 주로 기대에 올라 앉아 하는 운전일을 맡아하였다.

《운학 동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래일부터 쉬도록 하오.》

일용 동무는 부어 오른 그의 다리를 만지며 말했다. 그러나 운학 동무는 이렇게 간청했다.

《한 초가 새로운 때 대렬에서 물러 서는 것보다 더 서운한 일이 있겠어요. 제발 모르는 척하고 락오자는 만들지 말아 주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그의 억실억실한 두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해 있었다.

일용 동무는 그의 고상한 정신 세계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런 민청원들을 반원으로 데리고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집으로 돌아 가는 그들의 가슴에는 철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하는 붉은 광부로 된 영예와 청춘의 보람이 차 넘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하기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부과된 1월 분 계획도 141% 이상 초과 완수하였으며 2월 분 계획도 남 먼저 실행하였다. 지금 그들의 가슴에는 금년도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받들고 채굴 부문에서 더욱 큰 혁신을 일으킬 결의로 불타 오르고 있다.

본사 기자 하 만 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란 무엇인가

청년들의 공산주의 도덕 품성 배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 후 자라난 우리의 젊은 후대들은 과거 우리 사회의 착취적 관계를 직접 당하여 보지 못 하였고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남조선에서의 지주, 부르죠아 제도의 반동성에 대하여 똑똑히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역군으로 될 그들에게 지주, 부르죠아 제도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고 로동자, 농민이 주인으로 되여 있는 사회주의 제도와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주의 정신으로 그들을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김 일성 선집 5 권 243 페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란 사회주의 조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수립된 사회주의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고 그것을 견결히 수호하며 그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하여 일하는 정신과 태도를 말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과거의 애국주의와 질적으로 다르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높은 애국주의 품성을 발휘하였다. 그들은 나라를 위하여 열성껏 일했으며 조국을 침략하려는 원쑤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일떠서 자기들의 피땀이 깃들어 있는 조국을 끝까지 수호하였다. 수 나라와 당 나라 침략자들을 물리친 고구려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을 비롯하여 고려 인민은 거란과 원 나라의 침범을 물리쳤으며 리조 시기에는 일본 침략자들의 침습을 반대하여 전체 조선 인민이 일떠서 영웅적으로 싸워 물리쳤다.

또한 과거 우리 근로자들은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반동적인 지배 계급을 반대하여서도 용감히 투쟁하였다. 례컨대 갑오 농민 전쟁은 일본 침략자와 결탁하려는 부패한 리조 봉건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일어 선 우리 나라 농민들의 용감한 투쟁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똑똑히 알지 못 하였으며 착취 제도가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방도를 알지 못 하였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될 수 없었다.

력사상 진정한 애국주의는 로동 계급이 맑스-레닌주의 기치 하에 혁명 투쟁을 전개하는 때로부터 발생 발전한다. 즉 과거의 애국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로동 계급의 애국주의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발생 발전한다.

로동 계급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지도 하에 착취 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 위한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은 가장 애국적인 행동이며 과거의 어떠한 애국주의

보다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진정한 애국주의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하에 조직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발생하고 발전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조국을 해방하고 이 땅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온갖 간난 신고를 무릅쓰고 15 여 성상이나 가렬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항일 무장 투쟁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생생한 모범이며 항일 빨찌산들은 가장 열렬한 애국자들이였다.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룩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은 해방 후 근로 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조건에서 더욱더 발전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은 자기들의 행복의 원천이며 자기들의 피땀으로 건설하여 놓은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새 제도—사회주의 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항일 빨찌산의 고매한 애국주의 정신을 계승한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은 미제 무력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청춘의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으며 마지막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조국의 촌토를 사수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원쑤 미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굴복시켰다.

지금 사회주의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있다.

오늘 반동적인 착취자들도 《애국주의》를 떠들어 대면서 지주, 자본가에게 충성을 다 하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에 희생적으로 나설 것을 근로자들에게 강요한다. 만고 역적 리 승만이가 떠들었고 군사 불한당 박 정희도 《애국주의》를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면서 놈들은 나라와 인민을 팔아 먹으며 미제와 일본의 침략 세력을 끌어 들이는 것이 《애국적》이며 북반부를 침략하는 동족 상쟁의 전쟁의 대포'밥으로 되는 것이 가장 《애국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놈들은 인민을 기만하면서 미제에게 나라를 송두리 채 팔아 먹고 인민을 희생시켜 자기들의 부귀 영화만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이 착취자들이 말하는 《애국주의》는 순전히 인민을 기만하기 위한 반동적인 사상이다.

그러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자로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자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회주의 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인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전취물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원쑤들이 침해할 수 없도록 튼튼히 수호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반대한 피어린 투쟁으로써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벗어 났으며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해 놓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온갖 정력을 기울여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공업—농업 국가로 만들어 놓았다. 우리의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우리 근로자들의 락원이다.

그런데 미제와 그 주구들인 지주, 예속 자본가들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또다시 착취 제도를 회복하고 조선 인민과 청년들을 노예의 쇠사슬로 얽매여 놓으려고 온갖 파괴 암해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쑤들을 반대하여 철저히 투쟁해야 하며 항상 경각성을 높여 적들이 발 붙일 틈을 주지 말며 적들의 파괴 책동을 제때에 폭로 분쇄해야 한다. 그리고 목숨으로 나라를 철옹성 같이 보위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착취와 략탈을 일삼고 있는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를 몰아 내고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청산하며 우리 나라를 통일된 부강한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자답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조국이 더욱더 륭성 발전하도록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할 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과 전체 청년들은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과 자기의 향토를 사랑하여야 하며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락원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어디를 가나 기후가 좋고 강산이 아름다운 문'자 그 대로 금수 강산이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조국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리기 위하여 모든 힘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는 한 포기의 풀, 한 그루의 나무라도 다 우리 인민의 것이며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로력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공장, 우리의 협동 농장,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사랑하고 더 잘 꾸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를 산과 들에는 백화 만발하고 오곡과 과실이 무르익으며 전국이 조밀한 공장의 그물로 뒤덮인 락원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남녘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통일 후에는 전국에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면하게 7 개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며 하루 속히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서야 한다. 오늘 7 개년 계획의 기한 전 초과 완수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는 것은 우리의 애국적 의무이다.

세째로 우리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자답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훌륭한 것을 더욱 발전시키며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영예를 떨쳐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 놓은 훌륭한 문화 유산들을 계승하여야 하며 그것을 더욱더 개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를 연구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의 고귀한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나라의 모든 진보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민족적 긍지감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우리 조선 인민은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예로부터 찬란한 과학 문화 예술을 발전시켜 세계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늘 우리의 예술은 세계 인민들로부터 《황금의 예술》, 《금강석 예술》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우리 인민은 외래 침략자들이 기여 들 때마다 용감히 일어서 적들을 무찌름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고수한 애국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도 조선 인민은 굴하지 않았으며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특히 우리는 일제를 반대하여 15 여 성상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가렬한 무장 투쟁을 전개한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한 항일 빨찌산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의 령도 하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16 개 제국주의 나라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나라의 독립을 고수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

를 굳건히 지켰으며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세계 인민들로부터 영웅적 조선 인민이란 영예스러운 칭호를 받았다.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 세인을 놀래우는 천리마의 속도로 전진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사회주의 나라로 전변시켰다.

오늘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은 장기간의 혁명 투쟁에서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가장 현명한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령도를 받으며 로동당 시대, 천리마 시대에 사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천리마의 진군을 다그치고 있다.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그 어느 하나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해야 하며 응당한 민족적 긍지감을 가져야 한다.

청년들은 민족적 긍지감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덮어 놓고 깔보며 남의 것은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는 민족 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을 없애지 않는다면 교조주의에 떨어져 주체 없이 남의 것을 통채로 받아 들여 기계적으로 모방함으로써 우리 혁명에 해독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민족적 긍지감을 가지고 주체를 튼튼히 확립하여 자기의 힘을 믿고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풍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민족적 영예를 떨친 것처럼 민족의 영예를 존중히 하고 영웅적 조선 인민으로서의 영예를 더욱 떨쳐야 한다.

우리가 오늘과 같은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옳은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우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당 중앙 위원회가 의도하는 대로 생각하고 당의 정책을 이악하게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의무를 완수하는 기본 담보이다. 그리고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하는 것—이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가장 고귀한 품성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불가분리의 련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공동 위업을 위한 모든 나라 근로자들의 단합된 힘은 제국주의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면서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 승리를 촉진시키며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 승리는 곧 세계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국제주의에 충실할 수 없으며 국제주의에 충실치 못 한 사람이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에게 충실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애국주의자는 곧 국제주의자이며 또 진정한 국제주의자는 곧 애국주의자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 혁명에 충실하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완전 통일 독립을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제국주의 억압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전 세계 근로자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시대의 붉은 딸

인간에 대한 한없이 높은 사랑과 자기의 혁명 임무에 대한 다함 없는 충직성을 가슴에 지니고 우리 당의 보건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켜 락후하던 마을을 위생 문화적으로 앞선 무병촌으로 만든 평북도 선천군 인암 협동 농장 진료소장 민청원 김 균묵 동무에 대한 이야기

《유격대의 군의》처럼 살리라!



지금부터 4 년 전인 1959년 여름 어느 날, 평북 선천군 인암 협동 농장에 스물 안팎의 나어린 처녀가 진료소장으로 배치되여 왔다.

손에 트렁크를 든 그는 아직도 학생복 차림이였다. 처녀는 얼마 전 사리원 고등 의학 전문 학교를 졸업했는데 자진하여 여기 농촌 진료소장으로 배치되여 온 것이다. 그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 균묵 동무이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나이도 어리고 방금 학교를 나온 책상 물림이란 점에서 그더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나어린 게 알긴 무얼 알겠소.》

《글쎄 말이우다. 그러다가 농촌에 마음이나 붙지 않으면 훌쩍 떠나지나 않겠는지.》

이렇게 뒤에서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차츰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인식은 달라졌고 나중에는 그를 귀중한 사람으로 존경하게까지 되였다.

아직도 그 당시는 진료소가 신설된 때여서 모든 것이 불비하였다. 의료 설비들도 새로 꾸리고 약재도 더 풍부히 장만해야 했으며 진료소도 더 알뜰히 꾸리여 그야말로 보건 위생 사업의 거점이 되게 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경험이 부족한 그로서 이 모든 일을 치루어 낼려니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이로 해서 그는 밤에도 잠을 들 수가 없었다.

…깊은 밤 그는 회상기 《유격대의 군의》를 펼쳐 들었다. 동북의 눈보라 울부짖는 밀림 속 깊은 암자를 병원 삼아 수술 도구가 없으면 양철통으로 그것을 만들어 쓰고 눈 속을 헤쳐며 약초 뿌리를 캐며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그 고매한 혁명 정신, 그러다가도 적들이 밀려 들면 몸으로 환자들을 가리우며 원수들과 맞받아 싸웠다는 그런 사상과 그런 의지가 있다면 무엇인들 못 하겠는가! 그렇다 나도 《유격대의 군의》처럼 되여야 한다…

이 때로부터 균묵 동무는 당 조직과 민청 조직에 적극 의거하면서 진료소의 물질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균묵 동무는 진료소 간호원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틈만 생기면 진료소 부근의 채'목과 뜨락을 일구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무얼 심겠느냐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약초를 심으려고 그럽니다.》

과연 그는 밭을 일군 후에는 공휴일을 리용

하여 먼 산, 가까운 산들을 돌아 다녔다. 어떤 날은 70~80 리'길을 돌아 다닌 때도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형계, 소자, 산약 등을 비롯한 귀중한 약초들을 구해다가 300 평이나 심었다. 그 밖에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약초의 표본을 만들어 그의 용법, 효능을 광범히 선전하여 그것을 채취케 하였다. 그리하여 나중엔 로인들까지 떨쳐 나서서 각종 약초를 채취해 왔다.

어찌 그 뿐이랴! 그는 진료소를 더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토방을 쌓고 둘레에는 사과나무, 배나무를 떠다 옮겼다. 그리고 송진과 톱밥을 밤 재워 끓여서는 대기실과 진찰실에 맵시 있는 톱밥 장판도 하여 놓았다.

이리하여 그는 불과 1 년만에 단간 방 진료소를 삼간 방으로 늘였고 각종 약품들이 즐비한 진렬대도 두 세 개나 갖추었으며 상부에서 공급 받는 약품 외에 자체로 만든 약품만도 20여 종이나 더 장만하였다.

그는 비단 진료소만 이렇게 꾸린 것은 아니였다. 마을을 위생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해서도 각별한 힘을 기울였다. 그는 16 명의 청년들(초급 위생 열성자들)을 저녁마다 모아 놓고 각종 위생 지식과 예방에 필요한 기술 지식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을 훌륭한 보육원으로, 위생 초소장들로 키워내였고 그 중 일부 동무들은 간호원의 수준에까지 도달케 하였다. 그는 매일 아침 민청원들과 함께 마을의 큰 길도 쓸었고 부락 인민들 속에 위생 선전을 진행하여 80 여 개의 변소도 개조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인암 마을에 온지 불과 1 년만에 락후하던 마을을 위생 문화적으로 앞선 부락으로 되게 하였다.

《유격대의 군의》처럼 살리라는 처녀의 그 붉은 마음이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 내면서 이렇게 혁신을 낳게 한 것이였다.

《이 애는 밝은 태양 아래에서 무럭무럭 자라야 한다》

깊은 밤, 균목 동무의 방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선생님, 저의 안해가 몹시 위급합니다. 해산하다가 그만…》

이렇게 말끝도 채 맺지 못 하는 사람은 이 마을에서도 유죽진 곳에 사는 박 세경 동무의 남편이였다. 균목 동무는 그들 부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 해 결혼한 한 쌍의 행복한 신혼 부부였다. 이 행복한 가정에 첫 생명이 태여날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아들을 낳으면 첫 돐에 꼭 오라고 웃으며 롱삼아 말하던 세경 아주머니…그래서 수첩에는 그의 해산 무렵을 또박또박 적어 놓고 기다리던 형편이였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도 위급하다니…

《왜 벌써 알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무라며 균목 동무는 황급히 왕진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의 뒤를 따라 섰다.

산모의 방 안에 뛰여 든 균목 동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산모는 모진 진통 때문에 이미 실신 상태에 빠져 있었다. 산모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의 아낙네들과 할머니들도 여러 명 달려 왔으나 모두다 어쩔 바를 몰라 했다.

균목 동무가 다급히 응급 치료를 하자 산모는 간신히 눈을 떴으나 모진 진통 때문에 계속 대질치고 있었다. 10 분…20 분…터질듯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은 흘렀다. 시계를 보니 벌써 20 분이 지났다. 그래도 산모는 여전히 해산을 하지 못 했다. 이제는 더 지체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방 안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멎은듯한 정적 속에서 그는 땀을 흘리며 인공적 방법으로 해산을 시키기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손끝에 쏠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었다. 태포를 쓸고 세상에 나온 어린애는 가사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균목 동무는 이 때처럼 인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껴 본 때는 없었다. 이 곳에 부임된지 2 년 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여 본 일이 없는 그의 심장은 터지는 것만 같았다. 방안에 둘러 섰던 할머니들도 이제는 잘 가망이 없다고 시선을 딴 데로 돌렸고 막동딸의 첫 애기를 보려 왔던 산모의 친정 어머니도 치마끈으로 눈구석을 찍으며 《애 어미나 깨끗해야지》 하고는 그만 부엌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였다.

균목 동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는 마음 속으로 부르짖었다.

(안 된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위한 보건 전사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애를 꼭 살려야 한다. 이 애를 살려서 행복한 신혼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하여야 하며 그 애가 밝은 태양을 보고 방글방글 웃으며 힘 있게 자라게 해야 한다. 한시 바삐 어린애의 배 안에 가득찬 양수를 빼내야만 한다. 그런데 자기 손에 《양수 흡입기》를 쥐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이윽고 그의 얼굴엔 한가닥 결심이 어렸다. 그는 갓난애의 입을 마주고 힘껏 빨기 시작하였다. 빨고는 뱉고 뱉고는 또 빨고…이렇게 하기를 몇 십 번…드디여 파르르 애기 입술에 경련이 일더니 《앵!앵》갓난 애기의 첫 울음이 온 방안에 울려 퍼졌다. 세상에 귀중한 것이 많고 많아도 한 생명의 소생을 알리는 이 갓난 애기의 울음 소리처럼 귀중한 것이 어데 있으랴!

《애기가 살아 났어요!》

균목 동무는 이렇게 웨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쓰러지려 하였다. 그러자 산모의 친정 어머니와 동리 할머니들이 균목 동무를 얼싸 안았다.

할머니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소장 선생님! 소장 선생님!》

《소장 선생은 애기 엄마와 애기의 두 생명을 살궈 놓았소.》

《세상에 귀인이 있다 해도 이런 귀인이 또 어디 있겠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품에 안겨 있는 균목 동무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피여 있었다.

…다음 날 리 인민 위원회를 찾아 온 애기 아버지 손에 쥐여진 출생 신고에는 갓난 애기의 이름이 균옥이라고 적혀져 있었다. 균목 동무의 이름을 오래오래 잊지 않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였다.

실로 그는 환자를 위한 길,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이라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한층 더 그를 존경하게 되였고 《우리 시대의 붉은 딸》이라고 칭찬들을 하였다.

병 없는 가정, 병 없는 마을

균목 동무가 인암 마을에 온 이듬 해 봄이였다.

이웃 부락에서 소아 전염병이 발생할 징조가 보였다.

진료소에서는 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홍역 미경과자들을 위한 성인 혈액 주사가 일제히 실시되였으며 호상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도 조직되였다.

이 때 균목 동무는 밤낮 없이 부락 사람들



속에서 울았다. 그는 성인 혈액 주사를 하다가도 허약한 모성이 오기만 하면 서슴없이 그 자신의 팔을 걷어 올리고 피를 뽑아 냈다.

그러면 간호원들도 말 없이 그의 모범을 본받아 나서는 것이였다.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치료에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자기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일하는 그들은 동리에서 있을 각종 모임과 결혼식들이며 환갑 날, 어린 애기 첫 돐 생일날 등을 빠짐 없이 장악한 일람표를 만들었다.

이 일람표를 통해 부락의 모임들과 어느 할아버지의 환갑날, 뉘 집 딸의 잔치'날이 다가오기만 하면 누구보다 먼저 그 집들을 방문하고 대사를 치르는데 걱정되는 일은 없는가? 집안 사람이 모두 건강한가 등으로 그 집 일을 친일가마냥 보살펴 주면서 한편으로는 그 모임에 오게 될 일가 친척을 물어 그들의 건강 상태와 어린이들의 병력 관계를 알아 둔다. 이렇게 료해한 자료에 기초하여 대사집에 가는 아주머니들의 애기들(병력 관계가 있거나 건강 진단을 해서 접촉을 고려해야 할 애들)과 엽한 위생 초소장에게 하루 이틀씩 맡아 봐주게 한다.

또한 이런 일도 있었다. 4 작업반에 있는 제 창정 녀성이 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되였다. 그런데 아주머니에게는 어린애가 있었다. 아주머니는 이 일을 두고 몹시 근심하였다.

(아이를 남에게 맡겼다가 혹시 잘 돌보지 못하여 못된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이 때 균묵 동무가 찾아 왔다.

《아주머니! 우리가 그 애를 맡아 볼테니 아주머닌 념려 말고 병이나 빨리 고치고 오세요…》

《아니 원 그게 정말입니까?》 제 창정 아주머니는 균묵 동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세상에 한 피'줄을 나눈 동기간인들 이럴 수야 있으랴! 이런 일은 오직 영광스러운 로동당 시대에 나서 자라고 삶을 누리고 있는 당의 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날부터 균묵 동무와 간호원들은 어린애를 진료소에 데려다 놓고 바쁜 짬짬이 번갈아 그 애의 시중을 들었고 밤이면 자기들 품에 안고 자며 아주머니가 퇴원할 때까지 여러 날 돌보았다.

균묵 동무의 이러한 헌신적인 투쟁과 세밀한 예방 대책으로 하여 이 마을 어린이들은 홍역과 백일해 등의 전염병에서 완전히 보호되였다. 오직 당의 의도 대로 살고 일하는 그들! 그들이 얼마나 예방 사업을 치료에 선행시키라는 당의 보건 정책을 관철시키는데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대별, 개인별 병력서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거기에는 협동 농장 매 개인의 성명과 가족수, 생일날, 지난 기간 그가 해 온 로동의 종류와 년한, 몇 살 때 무슨 병을 앓았는가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 빠짐없이 세밀하게 기록되여 있다. 그리고는 봄철이 돌아 올 때나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랑'잎이 날리는 늦가을이 돌아 올 때면 의례히 병력서를 다시 한 번 내려 읽는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로 해서 특별히 방조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 가정 방문을 조직하고 진찰을 하며 건강 문제를 가지고 담화한다. 그리하여 계절의 변동과 함께 그들 속에서 재발할 수 있는 병들을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작업반과의 정상적인 런계 밑에 그들의 체질과 로동 능력, 병력 관계 등을 고려하여 로력 배치와 분공 등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해서도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게어 그는 진료소의 대기실에 한 장의 큼직한 도표를 붙여 놓고 거기에 월별, 순별로 벌어지는 작업의 종류와 내용, 사용하게 되는 로동 도구와 부주의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이르기까지 일목 료연하게 적어 놓고 매개 사람들에게 적응한 방조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부임 이래 홍역, 백일해 등 소아 전염병을 완전히 예방하였으며 104 명의 로동자를 제 손으로 건강하게 받아 내였고 락후하던 인암 마을을 위생 문화적으로 앞선 무병촌으로 전환시켰다.

본사 기자 신 상준

학습, 독서, 창작에 관한 명인들의 말

—리 룡 곡—

「학문을 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막힐 뿐만 아니라 식견이 넓지 못 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글을 읽어 리치를 연구하여 그가 나갈 길을 밝혀야 한다。 그 다음에 학문의 높은 경지를 개척하며 그 진리를 체득하고 실천을 통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배움이란 구체적 생활 속에 있다。 가정에서는 겸소하게 절도 있게 생활하여야 하며 밖에 나가서 일을 대할 때는 자기의 정력을 아낌없이 기울여야 하며 군중 속에서의 생활은 무엇보다 충실하게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생활 속에 곧 배움의 길이 있는 것이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다만 이러한 생활의 요구를 명확히 인식하고 파악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독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책을 대하면 잡념을 버리고 정력을 기울여 충분히 읽고 충분히 사고하며 그의 구절구절의 본질적인 사상을 파악한 기초 우에서 그가 요구하는 실천적인 방도를 찾아야 한다。 만약 책을 읽고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 하거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결국 책은 책 대로 나는 나 대로 되고 말 것이니 이렇다면 독서하는 보람을 아무데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박 지 원—

「학문하는 묘리는 다른 것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라도 물어야 한다。 타인이나 아랫사람이라도 나보다 한 자를 더 안다면 그에게 배울 것이다。

내가 남만 못한 것도 부끄러워하면서도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평생 고루하고 아무런 방도도 없는 그 속에 스스로 갇히어 버리고 마는 것으로 된다。」

—리 규 보—

「시 짓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말과 뜻의 통일된 아름다움이다. 뜻이 깊으면 깊을수록 씹는 맛이란 보다 훌륭하다 뜻은 깊되 말이 되잖으면 뒯고 뒯어서 그뜻이 못선다。」

—정 다 산—

「사람이 문장을 짓는다는 것은 풀어나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원정이 나무를 심을 때에는 그 뿌리를 물어 주고 줄거리를 바로 세워주면 된다。 얼마 지나면 진액이 올라가 지가 뻗으며 잎이 돋고 그런 다음에야 꽃이 피여 나온다。…이와 마찬가지로 문학을 하는 사람은 그 뿌리를 물어 주듯이 그 사상 감정을 살피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바로 나무 줄거리를 편히 해 주듯이 행동을 도탑게 하고 몸을 수양하며 나무에 진액이 오르듯이 고전을 연구하고 례법을 연구하며 나뭇가지가 뻗고 잎이 돋아 오르듯 견문을 넓히고 기교를 익힌 다음에 깨닫은 것을 분류하여 축적하고 그 축적한 것을 작품으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문장이라고 한다。」

「사상 감정이 본디 비속하고 낮으면 제아무리 맑고 고상한 말로 표현하려 해도 리치에 맞지 않으며 그 사상 감정이 본디 좁고 고루하면 제 아무리 넓고 활달한 말로 표현하려 해도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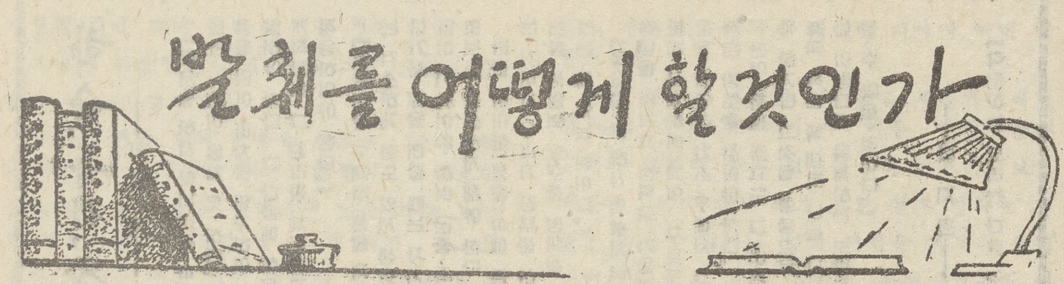
「수십 년 이래 일종의 괴이한 리론이 류행하고 있다。 그 론자들은 우리 나라 문학을 배척하며 무릇 선배들의 문집을 처음부터 눈주어 보려하지 않으니 이것은 크나큰 병통이다。 사대부 자식들이 자기 나라의 고전을 알지 못하며 선배들의 리론을 읽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학문이 고금을 관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잡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시집을 먼저 보려 서둘지 말고… 안목을 먼저 넓히도록 할 것이다。」

—김 만 중—

「오늘 우리 나라 시문이 자기 나라 말을 버리고 남의 나라 말을 배우기만 하는데 아는 설사 섭은 서로 비슷하다 할지라도 결국 이는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 내는 데 지나지 않는도다。 시골에서 나무 베는 아이들이나 물 길는 아낙네들이 더듬으며 서로 화답하는 노래는 비록 상스럽다 할지라도 만일 참과 거짓을 가지고 론한다면 원래 학사 대부의 소위 시부와는 동일에 론할 수 없다。」

발췌를 어떻게 할것인가



리 재 순

독서와 필기를 잘 결합시키는 것은 학습을 잘 해 나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는 독서와 필기를 결합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바 있다.

《우리가 그 전에 빨찌산을 할 때 공부를 해 본데 의하면 책을 읽고는 보고 느낀 점을 책 뒤'장에 써 두는 것이 좋았소…책을 내줄 때에는 거저 주지 말고 본 내용을 쓰도록 책 뒤에 백지를 한 장씩 붙여 주는 것이 좋겠소.》(인민들 속에서 2 권 93 페지)

필기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발췌(꼰스뻭트)는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필기하는 다양한 형식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면 발췌는 학습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레닌은 발췌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꼰스뻭트에서는 개별적인 문장 심지어는 개별적인 단어들까지도 자세하고 상세한 필기에서 보다 비할바 없이 훨씬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레닌 전집 4 권 39 페지)

발췌는 독서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더 심오히 리해하게 한다. 왜냐하면 발췌라는 것은 책에 써 있는 그 대로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고 기본 사상을 파악한 다음에 발췌하게 됨으로 자연히 책 내용의 본질적 사상을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은 책을 한 번 발췌하면 원문을 더 잘 리해하게 된다. 또한 발췌는 읽은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단순히 읽기만 할 때와 달라서 학습장에 써 넣는 과정을 통하여 또한 발췌한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된다. 발췌는 또한 사업에서와 학습에서 필요한 자료와 명제를 제때에 찾아 낼 수 있게 하며 시간을 절약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발췌는 심오한 사상을 자기 말로써 간단 명료하게 정식화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여 준다. 전개된 명제를 간단하게 자기 말로서 정식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독자적인 사고력과 판단 능력도 발전시킨다. 때문에 발췌를 하는 것이 시간은 좀 걸린다 하더라도 학습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면 발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발췌하는데 고정 불변한 《표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매 개인의 준비 정도와 책 내용의 성격 (맑스-레닌주의 고전, 기술 서적, 문예 서적 등) 그리고 발췌의 목적 등에 따라 발췌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또 매 개인에게는 사고의 특징이 있고 문장력 소유 정도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췌하는 방법과 그의 외형에도 개인적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정치 학습, 맑스-레닌주의 학습을 중심으로 발췌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필기 형식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요강을 작성하는 것, 주제 사상을 체계화하는 것, 필요한 명제와 내용을 그 대로 인용하는 것 등이다.

발췌는 이러한 필기 형식들을 자체 내에다 포괄하는 완성된 필기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발췌를 잘 하려면 우선 요강을 잘 작성해야 한다. 요강이라는 것은 해당 저서에서 연구하려는 문제들만을 체계화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요강에서는 저서의 구성과 저자의 사유 과정 및 그 순서가 밝혀진다.

례를 들면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빛나는 총화》 부문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을 발췌하기 위한 요강은 보고 내용에 립각하여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제목	발췌 요강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 (5~20 페지) .1)농업 협동화의 완성과 그의 공고 발전	1.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의 필요성 2. 농업 협동화를 위한 우리 당의 방침 3. 농업 협동화의 가일층의 공고 발전을 위한 당의 조치

다음으로 주제 사상을 체계화한다는 것은 요강에 기초해서 서적이나 론문의 기본 내용들을 간단하게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서를 전체적으로 또는 장, 절별로 깊이 연구 파악하여야 한다. 그 후에 이 사상들을 순차적인 조목 형식으로 간단하게 쓴다.

4 차 당 대회 문헌 학습에서 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Ⅱ. 위대한 전망

3. 농촌 경리(78~84 페지)

중심 과업 (보고 78페지)	△ 기술적 개조를 추진시켜 농업의 기계화를 실현하며 농업 생산의 가일층의 앙양을 보장하는 것이다. (농업 기술을 현대적 기계 기술로 교체하는 것은 우리 나라 기술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가지는 의의 (보고 78페지)	△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현 시기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의 필연적 요구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된 조건 하에서 농업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며 협동 경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업) (1)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에 농업을 확고히 따라 세울 수 있으며 경공업 원료를 원만히 공급할 수 있다. (2) 농산물에 대한 장성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3) 농민들의 로동을 헐하게 하고 그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할 수 있다.
기본 지표	△ • 농업 총 생산액 2.4 배 장성, 그 중 량곡 1.7배, 공예 작물 5.9배, 축산물 5 배, 과실 3 배, 잠견 2.8 배 • 량곡 총생산량—600~700만 톤 • 축산~돼지 두수 300 만 두 이상, 소 두수 100만 두 이상 • 과실 50만 톤

부문별 과업	△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촉진시키기 위한 과업 —기계화— (1) 농기계 작업소망을 확장하여 매 시, 군마다 작업소를 설치 (2) 뜨락또르, 자동차, 각종 농기계의 대수를 현저히 증가, 1967년에 뜨락또르 대수 8만 대 이상 (15 마력 환산) (3) 지대에 따라 대중형 및 소형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농기계들을 배합하여 리용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완성

다른 례로서 레닌의 저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시기에 있어서 경제와 정치》(전집 30 권)에 대한 것을 보자.

(브.이. 레닌의 이 로작은 1919년 사회주의 10월 혁명 제 2 주년을 기념해서 썼다)	△ 저서가 나오게 된 목적 《각국 공산주의자들에게 문제를 설정해 주며 그들이 이를 토의하기 위한 방향을 제공해 주는데》있다. △ 저서의 중심 내용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경제와 계급 투쟁 및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문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하에서 계급 투쟁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될 뿐이다.
과도기에 있어서의 계급 투쟁	명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새로운 형태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의 계속인 것이다.》 △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필요성 • 로동 계급은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피압박 계급으로부터 국가 정권과 사회화된 생산 수단을 관리하는 지배 계급으로 전환 • 프로레타리아트는 동요하는 중간적인 요소들을 지도한다. • 프로레타리아트는 착취자들의 증대된 반항력을 진압한다.(이 반항력은 바로 그들이 패배 당한 것으로 인하여 백 배 천 배로 증대하였다.) 지주와 자본가들은 타도됨. 그러나 그들에게는 국제적 토대가 있으며 약간의 생산 수단과 돈이 남아 있으며 《거대한 사회적 련결》이 남아 있다.

다음으로 발췌를 해 나가다가 맑스-레닌주의 고전적 명제나 저서의 중요한 개소들을 본문 그 대로 정확하게 옮겨 놓아야 할 때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그 대로 베껴 써야 한다. 례를 들면 제 4 차 당 대회에서 한 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빛나는 총화》에서 《천리마 운동》을 발췌할 때에 《천리마 운동은 우리 당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입니다.》 또한 《위대한 전망》에서 7 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에 대하여 정식화한 부문 즉 《7 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 기술 개건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라고 한 부문을 발췌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개별적 사실, 수'자 표식 또는 일람표 등을 본문 그 대로 인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발췌의 외형은 어떻게 되여야 하겠는가?

발췌는 잉크로 깨끗하게 알아 보기 쉽게 써야 한다. 발췌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략자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략자를 많이 쓰거나 란잡하게 쓴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 자신도 알아 보기 힘들게 된다. 략자를 쓴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곧 쉽게 알아 볼 수 있게끔 써야 한다. 발췌는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학습장에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카트에다 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는 각각 우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방식을 잘 결합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습장에 발췌하는 것은 학습회에 참가할 때 편리하며 보존하기 쉽고 흩어지지 않는다.

학습에서 이름난 신 일선 동무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카트의 방법은 임의의 장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발췌해 넣을 수 있으며 (학습 부문별 카트철이 있어서 출장시에 발췌한 것도 돌아 와서 해당한 부문에 철해 두면 된다.) 언제든지 필요한 내용을 꺼낼 수 있다. 학습장이나 카트에 발췌하는 양식은 매 개인의 준비 정도, 각자의 기호에 따라 각이할 수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학습장에 하는 방법

학습 제목	내 용	참 고
(여기에는 연구하려는 저서와 론문의 기본 제목들이 기록된다)	(학습 제목의 기본 내용을 전개한다)	(이 부분 학습에 필요한 참고 서적, 수'자, 도표 등을 기록한다.)

카트식 방법

№	카 트
1. 저서, 론문명	2. 페지
3. 제 목	
4. 기본 내용	

이 외에도 발췌에는 과학 기술 리론 론문을 읽고 중심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는 것과 문예 작품을 읽고 감상이나 평론을 간단히 써 놓는 것도 있다.

이상에서 발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다. 발췌를 잘 하기 위해서는 깊이 학습하며 자립적으로 문제를 생각하며 사상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발췌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리론 기술 문제를 보다 심오히 체득하고 자기 사업에 구현하여 더 큰 혁신을 일으키자는 데 있다.

청년들은 자체 학습을 강화하며 학습 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자체의 리론, 실무 수준을 높이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반미 구국 투쟁에서 조선 청년의 불굴의 기백을 시위하라

3.1운동 44 주년을 기념하여

정 종 균



오늘 조선 인민은 나라의 자주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 속에서 3.1 인민 봉기 44 주년을 맞이한다.

지금으로부터 44 년 전 1919년 3월 1일 30만 서울 시민들의 대중적 반일 시위로부터 시작된 인민들의 거족적 봉기는 일제 침략자들에 대한 조선 인민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다. 전국 방방 곡곡을 휩쓴 이 봉기에는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 반역자, 대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제외한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참가하였다.

분노와 격분에 찬 시위자들은 《조선 독립 만세!》, 《일본 군대와 일본인은 물러 가라!》,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 자유와 평등 만세!》 등의 구호를 높이 웨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파업, 동맹 휴학, 납세 거부, 습격, 파괴, 삐라 살포 등 각종 형태로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애국적 인민들은 적수 공권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 군경들의 야수적인 체포 구금과 학살에도 굴하지 않고 수개월에 걸쳐 치렬한 피의 항쟁을 계속하였다.

3.1 봉기는 당시 조선 사회의 력사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운동을 승리적으로 령도할만한 혁명적 당이 없었으며 또한 일제의 야수적 탄압으로 인하여 비록 실패하였으나 이는 위대한 10월 혁명이 열어 놓은 식민지 민족 해방 혁명의 새 시대에 일어난 조선 인민의 첫 대중적 반일 투쟁으로써 우리 인민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운동에서 조선 인민은 일제와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기들의 열렬한 애국 정신과 단결력 그리고 고매한 민족적 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3.1 봉기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애국적 인민들의 반일 투쟁이 더욱 광범히 전개되였다.

3.1 의 애국 정신은 불요불굴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진정으로 계승 발전되였다.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조선 혁명의 전략 전술적 기초가 확립되였고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이 이룩되였다.

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우리 인민이 그렇게도 념원하였고 3.1 운동을 비롯한 반일 투쟁에서 애국 선렬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민족적 독립과 자유가 성취되였으며 사회주의 지상 락원이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는 오늘 북반부와는 전혀 판이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온갖 파쑈적 전횡과 강도적 략탈로 남조선은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가 극도로 말살된 하나의 감옥으로 민족 경제가 여지없이 파괴 몰락되여 일할래야 일할 곳이 없고 살아 갈래야 살'길이 없는 빈궁과 기아의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되였다.

미제의 조종 하에 박 정희 도당이 《군사 정변》을 조작한 이후 남조선 사태는 더욱 험악해졌다. 그들은 장기간 남조선 전역에 《계엄령》을 실시하고 3천 여 건의 각종 악법을 조작하였으며 수십만의 경찰, 특무 밀정들을 도처에 박아 넣고 총검과 몽둥이로 모든 것을 짓누르는 살인적인 특무 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 천지는 감옥과 교수대로 뒤덮인 인간 생지옥으로 화하였다.

경제는 《손쓸 방도가 없게》 전면적인 파멸 상태에 처하였으며 인민들은 전례 없는 대중적 기아와 빈궁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다.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오래 전부터 망상해 오던 남조선에 대한 침략의 촉수를 뻗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는 반세기 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미제의 비호 하에 친미 친일 주구들을 길잡이로 우리 민족을 침략하던 리조 말엽을 방불케 하는 참을 수 없는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제의 식민지 기반 하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참화를 겪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이 이제 또다시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에 기여 들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 음모를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에 대한 인민들의 증오와 불만은 절정에 달하였으며 오늘 남조선 전역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과 같이 험악한 기세를 보이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은 그 밑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이에 극도로 당황 망조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부지해 보려고 파렴치하고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박 정희 일당과 더욱 빈번히 밀담을 벌리고 음모를 꾸며 오던 미 제국주의자들은 드디여 박 정희로 하여금 군정을 연장할데 대한 《성명》을 발표케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일체 정치 활동과 집회, 시위를 엄금하고 언론, 출판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할 목적으로 소위 《비상 사태 수습을 위한 림시 조치법》이라는 것을 조작 공포케 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제 《민정 이양》이요, 《민주주의 회복》이요 뭐요 하고 떠벌리던 기만적인 가면마저 완전히 벗어 던지고 군사 파쑈 통치를 무한정 연장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시시각각으로

심각화되여 가고 있으며 이제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른 식민지 통치 기반을 철권 독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유지해 보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이 계속되고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누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정권에 들어 앉거나 군사 파쑈 통치를 연장 한다 하더라도 파국에 처한 남조선 사태를 수습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당이 이미 루차에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살'길은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그의 식민지 통치를 종식시키며 민족 주체적인 힘에 의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는 군사 파쑈 테로 통치를 쓸어 버리고 로동자, 농민, 병사, 청년 학생, 지식인, 종교인, 상인, 기업가 등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가 참가하는 진정으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남조선에 수립될 이러한 자주적인 민주주의 정부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초미의 과업인 파괴된 남조선의 경제를 복구하며 도탄속에 빠진 인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족 주체적인 력량에 의거하여야 하며 우리 당이 이미 제기한 바와 같이 남북 조선 련방제를 실시하고 경제 문화적 협조와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어디까지나 민족 자주 자생 자결의 기치 밑에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남조선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민족의 장래 번영과 삼천만 조선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반석같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여 놓았다.

우리 민족 내부에 이러한 훌륭한 밑천과 가능성이 있거늘 무엇 때문에 외세에 의존하여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구걸할 필요가 있는가!

3.1 인민 봉기를 비롯한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남조선 청년들은 외세 의존의 망국 사상을 단호히 배격하고 자주적인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여 남북 련방제와 경제 문화 교류의 실현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군사 파쑈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 시기에 혁명적 당의 창건과 그의 합법적 지위의 쟁취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만이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줄 수 있으며 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이 이러한 당을 가지지 않고서는 혁명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은 지나 온 력사적 경험을 돌이켜 보더라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온 겨레가 적수공권으로 일제를 대적해 나섰던 피의 3.1 봉기도, 원산 총파업 그리고 광주 학생 운동도 혁명적 당이 없었기 때문에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남조선 인민들이 4월 인민 봉기에서 흘린 고귀한 피의 대'가를 미제의 다른 주구들에게 빼앗긴 것도, 군사 파쑈 도당들의 권력 탈취와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공격을 반대하여 효과적인 반격을 가하지 못한 것도, 바로 그들에게 이러한 혁명적 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조선 청년들은 로동자, 농민과 굳게 단결하여 이러한 혁명적 당의 창건과 그의 합법적 지위의 쟁취를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사회 정치 생활을 민주화하지 않고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당이 출현할 수 없으며 그의 합법적 활동이 보장될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청년들은 우선 남조선에서 사회 정치 생활의 민주화를 위하여 모든 반인민적 파쑈적 악법들을 모조리 철폐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단결은 힘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미제가 남조선에 남아 있는 한 남조선 청년들은 결코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의 기치 밑에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굳게 뭉쳐 미제 침략자들을 한 놈도 남김 없이 몰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미제의 조종 하에 남조선에 또다시 기여 들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여야 한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리한 판단력과 단호한 결단성이 요구되고 있다. 남조선 청년들은 지금 식민지 괴뢰 통치 하에서 그 대로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일어나 싸워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때가 오면 다시 들고 일어 날 것이다》라고 주먹을 가다듬어 온 남조선 청년이거늘 사생을 결단하는 이 마당에서 어찌 주저가 있을 수 있겠는가! 슬기로운 선조들의 애국의 기상을 이어 받은 이 나라의 청년들로서 어찌 이 엄중한 시기에 분연히 일어나 싸우지 않겠는가!

조선 청년들의 가슴마다에는 3.1의 불'길과 6.10 만세의 항쟁이 살아 있고 그들의 혈관 속에는 광주 학생들과 4.19 용사들의 기백이 맥맥히 흐르고 있다. 민족의 영예와 지조를 지켜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왜적들과의 싸움에서 15 개 성상 백절불굴한 항일 무장 투쟁의 혁혁한 전통은 우리들,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얼마나 힘있게 고무하여 주고 있는가!

굴종은 죽음이며 주저는 패배이다. 오직 투쟁의 길만이 삶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남조선 청년들이여!

공화국 북반부에는 조국 통일의 강력한 담보인 금성철벽의 혁명 근거지가 있고 북반부의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이 정의의 투쟁에 나선 당신들의 편에 서 있다.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남조선의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거족적인 반미 구국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자신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켜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조선 청년의 영예가 또 어디 있겠는가!

남북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이 일치 단결하여 궐기한다면 못 해 낼 일이 없다.

남북 조선 청년들은 하나로 뭉쳐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 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항전은 막지 못한다

1860~70년대 미국 양키의 침략을 반대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서

황 신 률

조선 인민은 100 년 전부터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로 등장한 양키 미제의 침략을 그때마다 격파하고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었다.

력사의 교훈은 아무리 강대한 제국주의 침략자들도 자기 조국의 자유 독립과 민족의 영예를 수호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하는 인민들의 힘을 당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 ×

미국 침략자들은 벌써 1845년 2월에 소집된 국회에서 극동 침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조선을 강제 《개방》할 것을 결정하고 지난 세기 60 년대부터 조선 침략을 기도하였다.

드디여 1866년에 양키들은 《제네랄 샤만호》 사건을 도발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공공연한 침략의 길에 들어 섰다.

1866년 7월 대포 2 문과 기타 총포로 무장한 해적선 《샤만호》는 대동강에 비법 침입하였다.

흉악한 침략적 야욕을 품고 기여든 미국 침략자들은 우리 측의 인내성 있는 여러 차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참을 수 없는 각종 도발 행위와 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만경대에 상륙하여 지형을 탐지하는 한편 총칼의 위협으로 조선 부녀자들을 릉욕하였으며 보통강구 부근에 래습하여 평안감영 중군 리 현익이 탄 배를 습격 랍치하여 갔으며 대동강안의 주민 지구에 총포를 란사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마구 살륙하는 한편 막대한 재물을 략탈하였다.

《샤만호》의 만행과 파렴치한 략탈 만행은 평양을 비롯한 부근 인민들의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와 격분을 불러 일으켰다.

증오와 복수의 일념에 불탄 지방 인민들은 침략자들에 항거하기 위하여 대동강반으로 모여 들었다.

침략자들을 격멸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던 8월 28일에 군관을 지냈던 박 춘권은 적의 우박치듯 하는 탄우를 뚫고 단신 적진에 돌입하여 억류 당했던 중군 리 현익을 구출하였다.

인민들의 기세에 놀리운 적들은 강안에 접근하지도 못 하고 총포를 총동원하여 무차별 포사격을 계속할 뿐이였다.

8월 31일에는 적을 섬멸하기 위한 총공격이 개시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군비 형편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필요한 준비가 되여 있지 못 하였다.

견고한 선체 구조를 가진 적선을 공격하는데 무기라고는 화살 밖에 없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인민들은 자신의 창조적 지혜를 동원하여 화공 전술로 적을 공격할 것을 결정하고 수 많은 작은 배들에 화약과 마른 나무를 가득 실어 그에 불을 질러 우로부터 《샤만호》를 향해 내리 띄웠다.

이리하여 불붙는 작은 배들이 《샤만호》에 부닥치자 화염은 그에 옮겨 순식간에 불 속에 잠기게하였다.

한편 지방 인민들은 《샤만호》 주위에 모여 활, 곡괭이, 돌멩이 등을 리용하여 원쑤들을 습격하였다.

노호한 우리 인민의 공격에 의하여 《샤만호는 9월 2일 양각도 하류에서 격침 당하였으며 최후까지 반항하던 미국 침략자들은 모조리 배에서 타 죽고 또 어떤 자들은 배에서 뛰여 내리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영웅한 투쟁과 애국적 창의를 발휘하여 무력적 위협으로 조선 인민을 굴복시켜 보려고 망상하면서 기여들었던 오만 무례한 미국 침략자를 반대하는 첫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 ×

1868년 《남연군묘》도굴 사건은 양키들의 야만성과 강도적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 놓았다.

《남연군묘》(대원군의 부친의 묘) 도굴 사건은 상해 주재 미국 총 령사관 직원이였던 미국 자본가 젠킨스에 의하여 감행되였다.

젠킨스 도당의 도굴 목적은 비단 무덤 속의 재물을 략탈하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의 남연군의 유골을 탈취하여 그로써 대원군을 위협하여 예속적인 통상 조약을 강요하려는 데 있었다.

1868년 4월 중순 젠킨스는 120 여 명의 강도단을 실은 함선 《차이나호》를 이끌고 상해를 떠나 충청도 아산만에 도착하여 덕산군 가야동에있는 《남연군묘》에까지 기여 올랐다. 묘지에 도착한 젠킨스 일당은 황겁히 무덤을 파기 시작하였다. 도굴 만행을 목격하게 된 가야동 주변 인민들은 침범자의 천인공노할 비행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싸웠다. 인민들은 낫과 창, 곡괭이를 가지고 싸웠으며 돌을 던져 원쑤에 항거하였다.

젠킨스 도당은 드디여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원쑤들의 만행에 분격한 인민들은 젠킨스 도당이 도망칠 때 도처에서 그들을 포위 습격하여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조선인민들의 결사적 항거로 《남연군묘》 도굴에서 실패하고 구사 일생으로 살아 난 양키 도당은 아직도 자기들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강화도 입구인 영종도에 불법 상륙하여 인민들의 재산을 함부로 략탈하였다. 이 때 영종첨사 신 효철 지휘 하의 조선 군인들은 인민들과 함께 적에 대한 치렬한 반격을 조직하고 매복전과 돌격전을 전개하여 상륙한 원쑤들의 대부분을 소탕하였다.

침략자들을 격퇴한 후 신 효철은 적 괴수 2 명의 목을 베여 성의 동문에 걸어 야수적인 침략자들이 당하고야 말 운명에 대하여 적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침략자들에게 끝까지 항거하여 조국을 굳게 지킬 불굴의 기개를 시위하였다.

이리하여 젠킨스 도당은 자기들의 근거지로 황겁히 도망치고 말았다.

× ×

1871년 영웅적 조선 인민은 미국의 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무력 침공을 (조선 력사상 《신미 양요》라고 불리우는) 반대하여 견결히 싸움으로써 놈들을 여지없이 격쳐버렸다.

조선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무장 침공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 침략자들은 자기들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더욱 대규모적인 무력으로 침략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

놈들은 철면피하게도 《샤만호》 사건에 대한 소위 《배상금》과 략탈적인 통상 조약의 체결 및 조선 항구들의 개항 등을 강요할 목적으로 1871년에 4 척의 본국 함대를 극동에 파견하는 동시에 청국과 일본에 있던 미국 병력을 총동원하여 주청 미국 공사 로우와 미 극동 함대 사령관 로쟈스의 지휘 하에 80 여 문의 대포와 1230 명의 병력을 가진 5 척의 군함을 기간으로한 소위 《조선 원정 함대》를 편성하여 가지고 우리 나라에 침공하여 왔다.

5월 30일에 강화도의 위성 도서들인 월미도, 영종도, 물치도 일대에 침범하여 경기도 해역에 대한 비법적인 측량과 현지 내탐을 각 방면으로 추진하였다.

미국 해적단은 6월 1일 마침내 2 척의 군함과 4 척의 증기선으로써 강화도의 군사 요새인 손돌목으로 기여 들어 도발 행동을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우리의 수비병들은 놈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가하였다. 적아 간의 격전은 가

렬하게 전개되였다.

미국 함대의 지휘자인 부페이그 대좌까지도 《그처럼 많은 불과 연기, 철, 유해한 포연이 그처럼 좁은 장소와 짧은 시간에 집중된 것은 경험치 못하였다.》고 손돌목 전투의 가렬성에 비명을 올릴 지경이였다.

우리 측 포병들의 장비는 적측에 비하여 극히 불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우박 같이 쏟아지는 적 탄우 속에서도 정확한 조준으로 적함 2 척을 격파하였다.

일찌기 겪어 본 적이 없는 가렬하고 힘에 겨운 이 전투에서 우리 병사들이 발휘한 대담성과 용감성은 《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던 미국 침략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손돌목 전투는 도발자 자신의 참패로 끝나게 되였다.

손돌목 전투에서 패배당한 미국 침략자들은 력량을 재 수습하여 가지고 6월 11일 650 여 명의 륙전대를 편성하여 강화도 최대의 요새인 초지진, 광성진 등에 상륙시켜 함포 사격의 엄호 하에 발악적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국 침략자들의 대규모적인 재차 침공으로 또다시 국가에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자 인민들은 전국적으로 반침략 투쟁에 일떠섰다. 인민들은 침략자들을 격멸하기 위한 의용군에 대중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연해의 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자발적으로 의용군을 결성하고 한강 하류의 서해안 일대에 보루를 쌓고 방어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전선에 대한 무기 보급과 의용병들의 무장을 위하여 모든 철물을 헌납하였으며 전국 방방곡곡의 야장'간들은 낮에 밤을 이어 날창을 만드는 등 무기 제조에 분망하였다.

전선을 탄원한 1000명을 헤아리는 각지의 산포수들이 직접 전연 방어선에 참군하였으며 기타 수 많은 인민들은 무기 군량의 수송을 전원하여 나섰다.

실로 더러운 침략자들의 침입으로 부터 자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적 항전에 전 인민이 한결같이 동원하였다.

이 때 중군 어 재연의 지휘 하에 광성진을 방어하던 우리의 수비병들과 각지에서 달려온 의용병들은 근 10 배의 수적 우세를 차지한 적과 마주 서게 되였다. 이 결정적 순간에 화승총만으로는 전투를 보장할 수 없었다.

용감한 조선군은 손에 돌과 흙을 다치는대로 주어 들고 원수들에게 갈겨 대면서 추호의 동요도 없이 용감하게 항전 함으로써 조국 촌토를 사수하였다.

한편 리 렴의 지휘 하에 초지진을 방위하던 약 500 명의 우리 나라 해안 포병들과 의용병들도 대담 무쌍한 야습전을 전개하여 150 명 이상의 적을 소멸하고 놈들에게 심대한 공포를 일으키게 하였으며 드디여 적을 바다로 구축하였다.

강화도 싸움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한 불타는 애국심과 영웅적인 투지에 대해서는 적들의 기록으로서도 알 수 있다.

미국인 그리피스는 《은둔국 조선》이라는 책에서 광성진 전투를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 군인들은 그대로 굴하지 않고 나중에는 흙과 돌을 던지며 어떤 병사는 육탄으로 미군에 달려 들어 두명을 칼로 찌르고 자기도 전사하였다. …조선 군인들은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응전해 가며 성벽에 올라 가서 미군에게 토석(土石)을 내 던졌다. 조선 군인들은 겨우 창과 칼로써 미군을 대항하여 싸웠는데 그나마 손에 무기를 가지지 못한 군인들은 맨 손으로 흙을 쥐여 미군의 눈에 뿌리는 등 그들은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처럼 밀려 드는 미군에 대항하여 결사적으로 싸웠다.》라고 썼으며 당시 소위 《조선 원정》의 전권 대표였던 로우는 미국 정부에 보낸 자기 보고서에서 《조선인들은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들의 용감성은 일찌기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세계 어느 민족도 조선 인민들의 용감성을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실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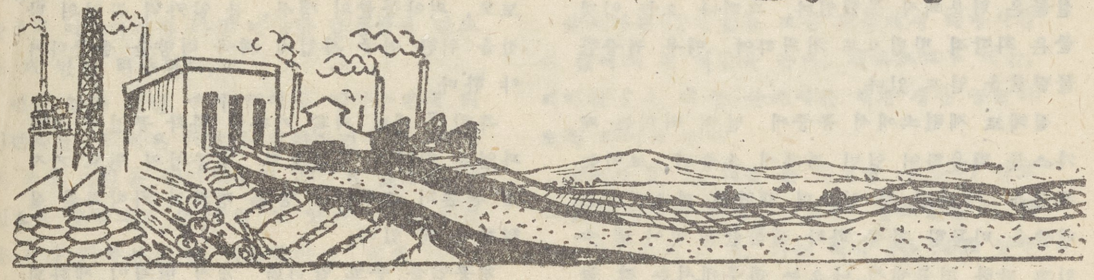
조선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적들은 40 여 일 간이나 온갖 흉계를 다하다가 끝내 도망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미국 침략자들의 세 번째의 무력 침공도 역시 그들 자신의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벌써 지난 세기 60~70 년 대에 미국 양키들이 허재비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오늘 미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써도 자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정당한 위업에 궐기한 조선 인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으며 력사의 흐름을 결코 저지시킬 수 없다.

인민 경제의 화학화



최 동 혁

오늘 우리는 전면적 기술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면적 기술 혁명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를 완성하고 자동화를 광범히 실시하며 동시에 화학화를 광범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화학 공업의 발전은 인민 경제의 기술 진보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의 자연 부원을 다각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 원래 없는 자원도 있는 자원으로 대용할 수 있게 하며 생산과 건설에 천연 재료보다도 훨씬 질 좋은 여러 가지 합성 재료들을 공급하여 줍니다. 더우기 경지 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에서 경공업 원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으므로 원료를 화학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화학 공업, 그 중에서도 유기 합성 공업의 발전과 인민 경제의 화학화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김 일성 동지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인민 경제의 화학화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값싸고 질 좋은 각종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적 진보를 달성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이것은 또한 7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그러면 인민 경제의 화학화란 무엇인가?

인민 경제의 화학화란 이미 달성한 현대 과학과 기술 발전의 성과에 립각하여 화학 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더 많이 리용하도록 하며 원료의 화학적 처리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제조 공정을 단축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생산 공정을 화학적 방법으로 전환시켜 로동 생산 능률을 현저히 높이는 것 등을 말한다.

인민 경제의 화학화는 우선 우리들에게 없는 자원을 있는 자원으로 대용할 수 있게 한다.

례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학 비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화학 공업이 발전하지 못했던 지난 날에는 농작물에 필요한 질소, 카리, 린 성분들을 자급 비료에 전'적으로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되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화학적 방법으로 각종 화학 비료들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벤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로써 각종 농약을 만들며 목화와 같은 자연 섬유 대신에 석회석과 무연탄으로 되는 비날론을 비롯한 합성 섬유를 얻어 내며 나무와 갈대로는 스프 인견사와 같은 인조 섬유를 만든다.

다음으로 인민 경제의 화학화는 여러 가지

공업 부산물과 페설물도 전부 유용하게 리용할 수 있게 한다.

화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공업 페설물은 리용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오늘 이것들은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매우 귀중한 물질들을 얻고 있다.

실례로 제련소에서 공중에 날려 버리는 페가스를 리용하여 인민 경제에 소중히 쓰이는 류산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해탄로 까스에서는 벤졸을 비롯한 각종 화학 제품들을 얻어 낼 수 있고 갈탄 건류에서 나오는 타루에서는 값 높은 파라핀 페놀류를 비롯한 화학 시약들을 얻어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의 화학화는 기술적 진보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게 함으로써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릴 수 있게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무기 화학 공업은 물론 비날론 공장, 화학 섬유 공장, 염화 비닐 공장을 비롯한 일련의 대화학 공장들이 신설됨으로써 유기 합성 화학 공업 기지가 창설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는 완전히 자기 나라의 원료 원천에 립각하여 각종 화학 비료, 농약, 의약품은 물론이고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등 화학 공업의 모든 부문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 경제의 화학화를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축성하였다.

그러면 현 시기 인민 경제의 화학화를 위하여 제기되는 과업은 무엇인가?

우선 화학 공업을 국내 자원에 립각하여 더욱 광범히 발전시킴으로써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축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이 부문의 연구 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무연탄 가스화의 연구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이를 광범히 도입하는 연구 사업을 시급히 완성하며, 산소 열법에 의한 카바이드 생산, 갈탄 고온 건류 등의 연구 사업을 완성하며 화학 공업 원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자원에 의한 각종 합성 섬유, 합성 수지, 합성 고무의 제조와 질 좋은 각종 화학 비료, 농약, 염료, 도료, 의약품들의 생산, 산 알카리 공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계속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7 개년 계획 기간에 화학 공업의 중심 과업은 화학적 방법으로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튼튼히 조성하며 농촌 경리의 화학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경공업을 두고 말하면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로부터 그의 원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급속히 장성하는 경공업의 원료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원료를 화학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선 인민 생활과 밀접히 결부된 섬유 문제 해결에 력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합성 섬유의 원료인 석회석과 무연탄 자원은 무궁무진하며 또 합성 섬유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례컨대 우리는 머지 않아 비날론 공장의 생산 능력을 3만 톤 수준으로 장성시키게 된다. 비날론 3만 톤은 30만 정보의 목화 밭에서 약 1억 5000 만 공수의 로력을 들여야 생산할 수 있는 목화를 대신하는 막대한 량이다. 그러면서 비날론은 그의 질이 면화보다 3~4배나 더 질기며 자연 섬유를 생산하는 데 비해 로력도 100분의 1 밖에 들지 않으므로 원가면에서도 훨씬 더 눅다. 또한 우리는 나무, 갈대로 인조 섬유를 다량 생산하며 카바이드, 무연탄, 소금, 옥수수 속 등으로 비크론, 나이론, 니트론 등도 대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더 값 눅고 질 좋은 천과 옷감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우리 당은 7 개년 계획 기간에 염화 비닐 수지를 비롯한 페놀 수지, 뇨소 수지, 메라민 수지 등 각종 합성 수지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킬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합성 수지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널리 리용된다.

례컨대 일용품 공업에서는 각종 의혁 제품, 아름답고 견고한 각종 가구류와 식기류, 려행용구에 이르기까지 다종 다양한 일용품을 만드는 데 널리 리용된다.

만일 염화 비닐 수지 박막을 랭상모판에 리용한다면 로력은 70%나 절약하면서도 벼'모의 육성 기일을 45일로부터 28일로 앞당길 수 있으며 수확고도 더 높일 수 있다. 또한 이것을 전기 피복선으로 대용한다면 전선 100만 메터 당 무려 66 톤의 생고무와 38 톤의 면사' 28 톤의 파라핀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오늘 우리 당은 또한 합성 고무 생산의 공업화를 위한 연구 사업을 계속 추진시킬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나라에 그 원료가 없는 고무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이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자면 우리 나라의 원료 원천에 립각한 합성 고무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돌려야 한다.

이 외에도 화학 공업 앞에는 각종 의약품, 안료, 도료, 시약, 방부제, 향료 합성 세척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종 다양한 원료와 자재, 일용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인민 경제의 화학화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과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질소 비료를 비롯한 각종 화학 비료를 대대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7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흥남 비료 공장을 비롯한 기존 비료 공장의 생산 기지(류안, 질안, 과린산 석회)를 더욱 강화하고 신설하는 동시에 류린안, 용성 린비료, 뇨소, 암모니야수 등 각종 비료 공장을 신설하며 카리 비료, 세균 비료, 미량 비료등을 다량 생산하게 된다.

뇨소 비료는 류안, 질안, 염안 등 비료보다 질소 함량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토양을 산성화하지 않고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린 세균 비료를 정보 당 5 그람만 시비하면 옥수수는 약 40%, 감자는 약 30%, 가을 밀은 20%를 더 증수할 수 있다.

살초제는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킴에 있어서 큰 역할을 논다. 펜타크로루 페놀, 찌마진 2.4. 디 등 살초제를 대량 생산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살초제 2. 4. 디를 논 정보당 0.5~1 키로 그람만 뿌리면 쇠털, 가래등 잡초들은 다 죽음으로 1톤의 2. 4. 디는 대략 1만 5000 공수의 로력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된다.

또한 헥사크로란, 디디티, 찌네브 등 제릅고 효능이 높은 살충제와 살균제, 그리고 성장 자극제와 단백질 사료로써의 뇨소 등을 대량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뇨소는 소나 염소와 같은 뿔 있는 가축에 사료와 함께 공급하면 1키로 그람 당 가축들의 생체를 6~7키로 그람이나 더 살지게 한다. 그러기에 한 톤의 뇨소는 사료에 공급되는 밀 22~25톤을 대신하는 것으로 된다.

오늘 나라의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 나가는 청년들은 응당 인민 경제의 화학화를 위한 투쟁에서도 앞장 서 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전면적인 기술 혁신 운동을 더욱 광범히 전개하여 현존 화학 공장 설비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는 동시에 우리 나라 원료 원천에 기초한 화학 공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농촌 청년들은 화학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각종 화학 비료와 살초제, 살균제, 살충제, 성장 자극제 등을 보다 효과 있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 음악의 자랑

—민족 관현 악단의 빛나는 전통—

문 하 연

오늘 우리의 예술은 세계 인민들로부터 《황금의 예술》, 《금강석 예술》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술이 남 달리 유구한 력사와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런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문예 정책이 아주 정당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예술 력사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살면서 로동 생활을 시작하던 때부터 헤아리게 되나 그런 아득한 옛시기의 사실들에 대하여는 문헌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러나 기원 전 2100여 년 전에 이미 중국에까지 우리 악무가 알려졌다는 것이 《후한서》와 같은 문헌에 기록되여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예술은 상당히 오랜 전부터 발전하고 있은 것이 짐작된다.

이 상고 시대의 사실은 그만 두더라도 기원 전에 고조선에는 공후와 같은 아주 발전된 악기와 그의 명수들이 있었으며 진한에는 가야금의 전신 악기인 진한금 이라는 다현 악기들이 인민들의 음악 생활에 복무하고 있었다.

진한금과 같은 다현 악기들과 거기에 따르는 많은 악곡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음악 발전의 수준이 아주 높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원래 발전되지 못 한 고대의 현악기로는 짐승을 사냥할 때에 쓰던 도구인 활을 그 대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관악기 같은 것도 죽은 동물의 뼈다귀에 한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에 가야금에 근사한 악기들이 진한에서와 기타 지방에 존재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우리 나라의 음악 문화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었는가를 가히 짐작케 한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같은 나라에는 일찍부터 정비된 실내 관현악단과 당시 군악대였던 고취악대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중국의 《통전》이라는 옛문헌에는 그 당시 고구려의 민족 관현악단의 정형과 거기 마춰서 추는 춤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여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관현악은 17 인조로 되여 있고 거기에는 많은 종류의 관현악기가 사용 되고 있다.

현대 구라파 관현악단이 그 형태를 비슷이 갖추기 시작한 것이 16 세기 경부터 이고 민족 관현악단이 발전한 것도 17 세기 이후부터이라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관현악단이 얼마나 일찍부터 발전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나라 기악단의 거대한 규모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력사 문헌들에 의하면 유명한 신라의 장군 김 유신이 서거한 때에는 100 명의 군악대가 주악에 참가하고 있다.

그보다 앞서 신라에서 기원 457년에 일본에 기악수 80 명을 보내였다는 기록은 3국 시기 우리 나라의 음악 문화가 높은 발전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특히 우리 나라의 관현악단은 12 세기 초에 들어 서면서 더 웅장한 구성을 가지게 되였다. 이 당시의 관현악단의 구성은 대편성에서 108 명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관현악단의 활동은 창작, 연주, 음악 리론 등 음악 전면에 걸친 높은 발전을 전제로 하는 바 이것은 우리 음악이 일찍부터 다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것은 이런 악단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는가를 고찰하면 더 잘알 수 가 있다. 3국 시기까지 이 악단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무용 반주를 하는데 사용한 악단이다. 고구려에서는 4 인무가 중심이 되고 있었으나 고분 벽화들에서 본다면 보다 많은 인원이 춤 추는 경우도 있고 안악 3 호분 벽화에서와 같이 한 사람이 춤추는 일도 있다.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실내악적인 조직들이다.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의식용 관현악단이다. 이 조직이 가장 큰 편성이였다고 보여진다. 애석하게도 벽화들에는 그 전면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 없으나 상당히 큰 음향을 내였을 북이 설치되여 있는 그림들로 보아 굉장한 규모의 악단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순수한 군악대인데 옛시기 군악대는 많은 경우에 악수들이 말을 타고 연주 행진하였다. 그 편성은 안악 고분 행렬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고위급 지배자의 가마를 사이에 두고 앞에 큰 북과 쇠종을 두 사람씩 메고 한 사람이 두드리고 가마의 뒤에 말탄 악대원들이 《배소》 라는 악기와 피리속 악기인 《가》와 적은 쇠종인 《노》, 적은 북인 《우보고》를 타주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것은 주로 당시 고관들의 행차악으로써 그 위계에 따라서 악대 배치 인원도 달랐고 행차 성질에 따라서도 악기 배치가 달랐다고 본다.

그러나 군대 행군시의 악대는 이와 다르며 이에 비하여 보다 단조롭고 보다 실용적 신호적인 성격을 띤 악기들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악기는 많은 경우에 신호의 역할을 하였다. 례컨대 북을 치면 전진하고 종을 치면 퇴각하는 등이 그런 것이다.

군대 행렬에는 물소뿔로된 각과 적은 북을 울리면서 행군하였는데 이 때의 악수는 도보 연주 행진을 하였다.

중세기에 내려 오면서는 여러 악기들 즉 새납이라던가 쇠뿔이 나발이라던가 주라 라고하는 우—우 소리만 내는 큰 소라 껍질을 가지고 만든 전성관적 악기라던가 금속 타악기인 징, 꽹과리 등 음향이 강한 야외용 악기들이 더 참가하고 있다.

고려 시기에 들어 서면서 우리 나라에는 오늘로 말하면 무대 예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무대 예술 가운데서 오늘 조선 무용의 면 전통으로되고 있는 향악 정재라고 하는 양식이 아주 세련되여 갔다.

우리 무용은 그야말로 우아한 동작을 가진 무용으로써 세계 인민들이 경탄하는 예술 종목이다. 그 가운데서 《북춤》이라던가 《아박춤》 같은 것은 고려 시기에 이미 그 형태가 정돈되였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쌍무인 북춤을 보고 마치 두 나비가 꽃을 둘러싸고 돌아드는 것 같고 청룡, 백룡이 여의주라는 구슬을 서로 빼앗으려고 싸우는 듯 싶은 춤 이라고 절찬하였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도 우리 무용 율동의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춤가락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거기에 음악이 반드시 안받침되는 것인데 이 음악가락이야 말로 춤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데서 고려 시기에 와서도 관현악단에 큰 주의를 돌리고 있는바 거기에는 가야금, 거문고, 저'대, 피리, 장고 등 많은 순수 민족 관현악기가 참가하고 있다.

무대 예술 종목에서는 이런 무용 외에 오늘로 말하면 가무극과 같은 양식도 새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관현악단은 단지 반주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 간주 등 독자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악대 편성도 적지 않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무대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논 것은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성과 평양에서 열리는 팔관회라던가 연등회와 같은 당시의 국가적인 행사였다. 이 행사를 진행하는 절간 주변에는 가지각색 형태로 만든 초롱'불을 밝아서 그 당시 사람들의 말을 빈다면 마치 밤이 낮과 같이 밝은데 이쪽 저쪽에 무대를 설치하고 연예 경연 대회가 진행된다. 이것을 구경하기 위하여서는 린근 사람들은 물론 먼 곳에서까지도 모여 와서 구경'군들은 삼'대 서듯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고려 초 시기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에는 굉장한 악단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 실례로써 13 세기 중엽에 당시의 집권자 최 이는 자기가 배픈 연회에 무려 1350 명이라는 예술가들을 출연시킨 대 연회를 가졌다. 물론 이 가운데는 무용수, 가수들도 섞여 있었을 것이나 그의 많은 인원이 관현악에 참가한 사람들이라고 추측된다.

이렇듯 우리 나라의 민족 관현악단은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 비하여 수 세기 전부터 호화 찬란한 개화를 보이고 있다.

수령님의 가르침은 나의 생활과 활동의 지침

《비록 우리는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재일본 조선인 총 련합회 니이가다 출장소 조청 위원회

김 룡 길



나는 현재 재일본 조선인 총 련합회 니이가다 출장소 취주악단의 한 사람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취주악단에 배치 된 것은 아직도 눈이 깊이 쌓인 1960년 2월이였습니다. 이 때 나의 마음은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으며 학생 시절에는 (나는 요꼬하마에 있는 가나가와 조선인 중 고급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취주악단에 소속하여 음악 공부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내가 이제는 전문 취주악단에 있게 되였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다도 내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출장소의 취주악단이 뜻깊은 여기 니이가다항에서 조국으로 돌아 가는 동포들을 태운 귀국선을 바래우는 일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매 선마다 수 많은 재일 동포들이 천대와 멸시 등 온갖 설음 많은 이국살이에서 벗어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가 계시는 따뜻한 조국의 품으로 돌아 가는 것을 보고 한없이 기뻐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 드려야할 것은 나의 지난 날 사업에서는 적지 않은 부끄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나는 맡은 바 사업에서 적극적이 못 되였고 모든 일에서 항상 수동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러한 결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의 교시였습니다.

출장소에 배치되여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수령님의 제반 로작들을 배우게 되였으며 그를 점차 자기 사상으로 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과거 21년 동안 내가 살아 온 과정에서 수령님의 교시처럼 나의 가슴을 뒤흔들어 준 감격을 지금까지 나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까지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세계를 환히 볼 수 있게 되였으며 나 자신의 사상을 개조하게 되였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귀국선이 출항한 후 다음 배가 입항할 때까지의 짧은 기간이나마 그 시간을 리용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교시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정책을 동포들에게 해설 침투하는 사업을 진행할 데 대한 발기가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부터였습니다.

얼마 후 우리의 공작반은 니이가다시에서 얼마 멀지 않은 니이쯔 지부 관내로 나가게 되였습니다. 나는 니이쯔 지부 쯔가와 분회란 곳으로 내려 가 3일 동안 사업을 하고 다시 니이쯔로 돌아 왔습니다. 이 때 나는 우리 출장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 박신 동무와 만나게 되였습니다. 그는 이 곳 지부 고쟁 분회에서 돌아 오는 길인데 웬 일인지 그의 낯색이 보통이 아니였습니다.

리유를 알고 보니 그가 공작하러 나간 고쟁 분회에는 십 여호의 우리 동포가 사는데 그 중 고철상(古鉄商)을 해서 그 날 그 날을 살아 가고 있는 김 길초라는 로인이 위'병으로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였습니다. 멀리 조국에서 떠나 이국 땅에서 그것도 도꾜나 오─사까와 같이 우리 동포들이 밀집해 사는 곳도 아니고 깊은 산간 벽지에서 중병을 앓게 되는 김 로인에 대하여 우리는 동정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우기 김 일성 원수님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정신을 배운 우리로서는 차마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때 지부 사무소의 전화 벨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전화는 고쟁 분회에서 온 것입니다. 김 로인의 병이 갑자기 악화되여 지금 곧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나 허약해져서 수혈을 해야 하겠는데 혈액 은행의 피를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병세가 악화된 환자에게는 생혈이 아니고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다량의 수혈을 하지 않으면 김 로인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체없이 지부 상임 일'군들과 함께 곧 고쟁에로 달려 갔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자마자 김 로인이 누워 있는 병실을 찾아 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서 누워 있는 김 로인을 보았을 때 나의 머리에는 방 하수 소년의 생명을 구원한 흥남 비료 공장의료 일'군들과 함흥 의과 대학 학생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나 깨나 잊지 못할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사는 동포들의 그 아름다운 소행을 읽으면서 나는 그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김 로인이 위급한 중병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 동무와 나는 의사로부터 곧 수혈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주저없이 혈형의 조사를 청원해 나섰습니다. 우리의 피를 조사한 결과 신통히도 환자와 꼭 같은 A 형이였습니다. 그러자 우리들은 피를 제공하겠다고 의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두 사람의 피까지는 필요 없을런지도 모르니까 우선 한 사람의 피만 수혈해 보고 그 결과를 보아 또 한 사람의 피를 수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면 내 피를 먼저 뽑아 주시오》하고 나는 팔을 거두며 말하였습니다. 오 동무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다량의 피를 뺀다는 것은 오히려 그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오 동무 역시 자기 피를 먼저 뽑아 달라고 의사에게 간청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물론 그의 의견을 반대하였습니다.

《만일 동무가 수혈한 다음 빈혈증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작정이요?》

《글쎄 전 넘려 말라구 선생님 제 피를 먼저…》

이리하여 우리들은 서로 자기가 먼저 피를 환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먼저 수혈을 하게 되였습니다. 다행히 나 혼자의 수혈로써도 김 로인의 쇠약은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김 로인의 병의 경과는 차츰 좋아지고 몇달 후에는 퇴원하게까지 되였습니다. (이것은 후에 들은 말입니다.)

나는 그 후 다시 공작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고쟁 마을을 찾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때 이제까지는 분회 회합에도 잘 참가하지 않고 항상 분회의 말썽'거리로 되고 있던 그 김 길초 로인이 퇴원 후에는 분회 열성자로 되여 총련 방침 침투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무엇 때문일가요? 그것은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수상님의 위대한 혁명 사상이 뜨겁게 고동치고 있으며 그것이 사업에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쟁 분회는 니이쯔 지부 관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분회로서 모범 분회 칭호 쟁취 운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자그마한 체험을 통해서도 항상 수령님의 말씀 대로 행동한다면 세상에 감화 못시킬 사람이 없으며 해 내지 못할 일도 없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수령님의 교시를 열심히 공부하며 혁명 전통 학습을 깊이하여 조국과 인민 앞에 충직한 일'군이 될 것을 굳게 결의하고 있습니다.





의지의 힘

우리 작업반의 김 금옥 동무가 기술 학습에 뜻을 둔 것은 5 년 전부터의 일이다. 인민 학교 밖에 졸업 못한 그가 바쁜 양잠 일을 맡아하는 짬짬이 시부모와 남편, 시동생들의 시중을 들면서 기술 학습을 하기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금옥 동무는 결코 한 번 마음 먹은 바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우선 마을의 잠업 기수로부터 《잠업 독본》 책을 얻어 가지고 한 줄 두 줄 배워 나갔다. 원래가 공부라군 못한 그는 어떤 기술 용어들은 두세 번 곱씹어 읽어도 그 뜻을 잘 리해할 수 없었다.

제일 곤난한 것은 그에게 학습 시간이 없는 것이였다. 온 종일 잠실에서 일하다가도 집에 돌아 오면 시부모와 남편이 입던 옷을 빨아야 했고 나어린 시동생들의 시중도 들어야 했으며 식사도 지어야 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금옥 동무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학습 계획을 면밀히 짜야 하며 바늘 틈만한 시간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도 전날 배운 것을 복습하였고 빨래질과 바느질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하나 외워 보았다. 그는 오직 학습에서의 비결은 완강한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학습이 거듭될수록 처음엔 잘 리해하지 못 하였던 문제들이 명료해졌다.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기쁨이란 더 할 나위 없었다. 그는 분초를 아껴 가며 《잠체 생리학》, 《재생학》, 《잠체 병리학》 등 전문 학교 교과서들을 한 책 씩 학습해 나갔다.

얼마 후 그에게는 귀여운 첫 애기가 태여 났다. 어린 애의 시중 때문에 학습 시간은 더욱 부족하게 되였다. 그 때부터 금옥 동무의 입에서는 새로운 내용의 《자장가》가 흘러 나오기 시작하였다.

《…자장 자장
누에에게는 호흡기와 배설기가 있고
소화기와 혈액 순환 계통이 있단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두 잔다. …》

이렇게 그는 학습 내용을 《자장가》로까지 만들어 가며 공부하였던 것이다.

그의 이와 같은 노력은 끝내나 열매를 맺어 1960년 그는 어린애를 업고 마을 청년들 속에 섞이여 시험 장소인 덕천까지의 왕복 800 리'길에 올랐다. 그가 시험치러 들어 갔을 때 시험 위원 선생은 그가 애기 어머니라는 데로부터 약간 미타해하며 물었다.

《아주머니! 어디한번 누에의 미립자 병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오》.

《네 미립자 병은 누에의 병 중에서 가장 완만한 병이예요. 그의 전염 경로는 어미를 통한 모체 전염과 입을 통한 경구 전염이 있어요. 그런데 누에는 이 두가지 전염 경로를 순환적으로 되풀이 하거던요…》

그야말로 열 가지를 물어도 스무 가지를 물어도 하나 막히는 데가 없었다. 시험 위원 선생은 경탄해 마지 않았다.

《아주머니 정말 훌륭합니다. 두 과목은 완전히 합격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열성적으로 하십시오.》

그 후에도 금옥 동무는 애기를 업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시험치러 가서는 재상, 육잠, 야잠, 잠체 해부학, 토양 비료학 과목 등을 차례로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기술 학습에서 모범인 김 금옥 동무는 지난 2월 영광스럽게도 《민청 창립 10 주년 기념 청년의 영예 상》을 수여 받았다.

문덕군 어룡 협동 농장
리 순영



피로 물든 양키의 죄악사 (2)





리 창국

미국의 발전은 토착 원주민들인 인디안들과 흑인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략탈과 살륙 노예화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근세에 와서 노예 제도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서 이미 사라졌으며 력사의 페물로 되고 말았으나 오직 미국 부르죠아지들은 이 치욕스러운 제도를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구라파인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의 탐욕스러운 식민지 략탈을 위하여 서반구에 수 많은 광산, 농장 및 목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과정에서 봉착한 가장 큰 난관은 이러한 광산, 농장 및 목장에 소요되는 막대한 로동력을 얻어 내는 문제였다. 그리하여 식민지 략탈자들은 여기에서 강제 로동시킬 인디안과 백인 로동자가 충분하지 못 하였음으로 아프리카의 네그로 (흑인)를 노예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양키들은 흑인들의 노예 로동을 통하여 더 많은 딸라를 긁어 모으려고 하였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미국에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1619년이였다. 바로 이 때로부터 오늘날 미국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1천 8백만 흑인들의 피눈물나는 력사가 시작되였다.

흑인 《노예 무역》의 중심지는 서부아프리카 즉 세네갈 감비아 사드라—레께강 지역과 니제르강 삼각주들이였다. 《노예 무역》이 막대한 리윤을 가져 왔던만큼 양키들은 아프리카의 해안에 자기의 항구와 대리점을 설치하고 무장을 갖춘 《흑인 수렵대》를 조직하여 《흑인의 고기 맛이 칠면조보다 낫다》 고 하면서 문'자 그 대로 《사람 사냥》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흑인 부락을 집단적으로 습격하여 흑인들을 랍치하였으며 흑인 종족들 간에 불화를 조성시켜 놓고 그를 리용하여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었으며 흑인 종족의 추장들을 기만하여 소총, 화약술, 직물, 유리 구슬 등을 주고는 노예를 받았다.

노예 상인들의 《흑인 사냥》에서의 야수성에 대해서는 아메리카에로의 수송시에 최소한 4천만 명 이상의 흑인들이 죽었다는 사실만 들어도 족할 것이다.

《노예 수렵자》들은 《흑인 사냥》에서 획득한 네그로들을 몇명씩 철쇄로 함께 묶어서 수백 리의 거리를 도보로 몰았고 노예라는 표징을 밝히기 위하여 가축과 같이 벌겋게 달군 쇠로써 이마에 도장을 찍었으며 노예선에 실어서 아메리카에 수송하였다.

배 안에서는 노예들을 상상할 수 없을만큼 빽빽한 곳에 가두어 두고 굶주리게 하였으며 잔인하게 취급하였다. 1821년에 아메리카 항구에 있던 한 척의 해적—노예선에서는 《노예를 넣은 방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는 앉아 있을 수 밖에는 없었고 그들은 서로 다리 틈에 대단히 빽빽히 앉아 있어서 밤이고 낮이고 눕지도 못 하고 자세를 변경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것도 오히려 좋은 편이였고 대부분의 노예선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45 센찌메터 밖에 되지 않았다.

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해가 진 후에는 노예들을 모두 아래로 몰아 넣었다. 거기에서 매인의 잠'자리로 180×40 센찌메터의 공간이 할당된다. …그들을 되도록 빽빽히 눕히기 위하여 채찍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몸뚱이는 마비되고 경련이 일어 났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도 폭풍우가 있는 날의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였다. 그런 날은 갑판의 승강구 문은 닫혀지고 창살은 방수포로 가리워져서 공기는 답답해지고 호흡이 곤난하게 되여 마루'바닥은 땀으로 젖는다. 갇혀 있는 네그로 (흑인) 들의 신음'소리와 가쁜 숨'소리는 갑판에서도 들린다.》

미국 노예 상인들은 수송 도중 식량과 물이 부족하거나 그 선박이 나포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노예들을 서슴없이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러한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교역의 리윤은 한 항해에 1000%에 달하였다.

흑인 학자 듀보아는 《네그로》라는 저서에서 《서반구에 수입된 노예 매명에 대하여 아프리카에서 살해되였거나 또는 대양을 건너서 운반할 때에 사망한 흑인이 5 명으로 되고 있으며 이리하여 아프리카는 6천 만 이상의 인명을 상실 당하였다.》고 썼다.

아메리카에 와서 겨우 살아 남은 노예들은 가축과 마찬가지로 《노예 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판매되였다. 전문 《노예 시장》에서 노예 상인들은 노예들의 팔 다리를 철쇄로 얽어매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물건을 팔듯 경매를 하였으며 구매자는 구매한 노예를 《새 주인》에게 《길들인다》 하여 채찍으로 때리고 도망치지 못 하게 밤에는 다리에 족쇄를 걸어 두었다. 미국 노예 상인들은 흑인들의 수를 《몇 마리》로 헤였다.

양키들은 이와 같이 사들인 노예들을 완전한 롱배 상태에 떠붙게 하며 그들을 가혹하게 억압 착취하였다. 노예들은 완전히 가축으로 취급되였으며 하루에 18~19 시간의 로동을 강요 당하였다. 미국에서는 네그로를 죽여도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양키들은 흑인들이 광산, 농장 및 목장에서 도주하거나 노예제를 반대하여 봉기를 일으킬 경우에는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는바 1816년 플로리다주에서 1천 명 이상의 도주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한 사람도 남김 없이 섬멸하였다.

딸라의 돈 주머니에 매수된 미국의 부르죠아 어용 학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미하는 아메리카의 《문명》의 밑바닥에는 수천 수백만의 흑인들의 백골이 묻혀 있으며 그들의 피눈물이 스며 있다.

레닌이 일찌기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의 노예 소유자들인 미국의 억만 장자들의 매 딸라마다에는 수천만 인류가 흘린 피의 흔적이 력력하다.

* *

야수적인 노예 상인들의 후예인 미국 양키들은 20 세기에 들어 와서도 가증스러운 《노예 무역》을 계속하고 있다. 달라졌다면 공개적인 《노예》라는 명칭 대신 허울 좋은 《이민》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이 바뀌여졌을 뿐이다.

미국의 노예 상인들은 우리 나라에도 자기들의 더러운 마수를 뻗치였다.

20 세기 초에 미국 노예 상인들은 조선에 기여 들어 《자선》과 《박애》의 탈을 쓰고 우리 동포들을 《이민》으로 끌어다가 대농장주와 광산주의 배를 불리게 하였다.

놈들은 《미주는 살기 좋은 곳이다. 4 년만 일하면 평생 놀고 먹고 부자가 되여 돌아 온다. 돌아 올 때 100 원의 상금을 주며 그 곳에 가서도 공부시켜 준다.》라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 넘겼다.

1902~1905년에 미국 노예 무역 회사의 하나인 《대륙 개발 회사》는 4천 6백 여 명의 조선 인민을 하와이를 비롯한 미 대륙 서해안과 남미주에 끌어다가 팔아 먹었으며 멕시코에는 3천 여 명의 《이민》을 실어 갔다.

1905년 음력 섣달 단 돈 3 원에 팔려서 1,300 여 명의 우리의 동포들을 실은 한 척의 노예선이 조선을 떠났다.

항구를 떠난 그 순간부터 이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노예살이가 강요되였다.

그들은 부녀자들과 어린애를 따로 갈라 놓고 모든 사람의 발목과 손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이마에는 《노예》라는 큰 표식을 한 패쪽을 잡아 매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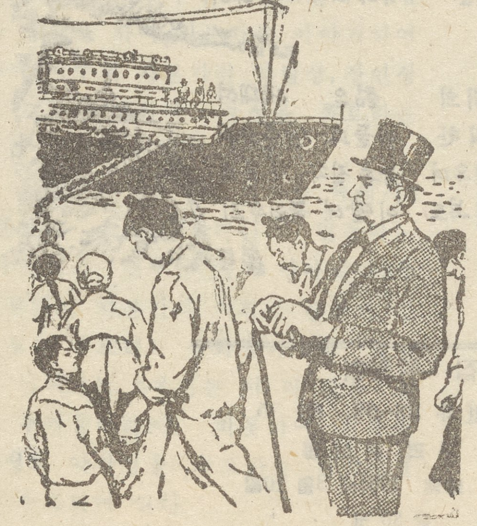
배라는 것은 화물선이였으며 게다가 너무 좁아서 석탄 창고까지 사람을 채웠다.

밥이라는 것도 옥수수 가루로 만든 시꺼먼 덩어리였으며 반찬이란 소금에 절인 무 한 쪽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항행 도중에 들어 누웠다.

양키 승냥이놈들은 앓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산 사람 채 한 궤짝씩 넣어서 거기에 무거운 쇠뭉치를 달아 태평양 물 속에 던졌다.

항행 도중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무려 86 명이나 된다. 4 개월 후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멕시코의 《살리나스 크루스》라는 항구였다.



그들이 끌려 간 농장과 광산은 사실상 하나의 감옥이였으며 인간 생지옥이였다.

그들은 광산과 농장에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된 로동을 강요 당하였다. 농장의 숙소 바람'벽에는 사람의 피가 묻은 채찍이 여러 개 주렁히 걸려 있었다.

식사는 하루 두 끼—돌'덩이 처럼 굳은 빵조각과 소금에 저린 몇 알의 콩조각 뿐이였다.

모든 것을 태워 버릴 것 같이 사정없이 내려 쬐는 열대 지방의 해'빛 아래 작업을 하는 동포들의 피부에서는 빠작빠작 타는 소리가 났다. 힘겨운 고역에 못'이겨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감독놈은 일을 부지런하게 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한 사람을 십자가에 볼들어 묶어 놓고 옷을 벗기였다. 그리고는 사탕을 진하게 푼 찐 찐한 액체를 그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온 몸에 발랐다. 해'별은 그를 태울듯이 내려 쬐였다.

피부가 죄여 들고 터져났다. 그러자 사방에서 무섭게 큰 왕파리떼가 시꺼멓게 달라 붙어서 피를 빨아 먹었다. 그는 아픔을 참지 못 하여 십자가에 묶인 채 몸부림을 쳤으나 소용이 없었다. 밤이 되자 무서운 왕모기떼가 움직이지 못 하게 그의 온 몸에 달라 붙어 피를 빨아 먹었다. 이리하여 그는 끝내 양키 노예 상인들에 대한 원한을 품은 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죽음의 생지옥에서 견딜 수 없게 된 동포들은 두차 농장에서 탈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놈들에게 잡혔으며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다.

해방 후에도 미제 침략자들은 리 승만 매국 역도와 결탁하여 이른바 《이민》 책동으로 새 많은 우리 형제들을 노예로 끌어갔다.

미제는 이미 1953~1956년 기간에만 1,376 명의 청장년들과 944 명의 아동들을 《이민》이라

는 구실 밑에 미국, 서전, 파이 등에 노예로 넘겨 주었다. 이들 중 2,000 여 명은 메시코의 노예 시장에서 전매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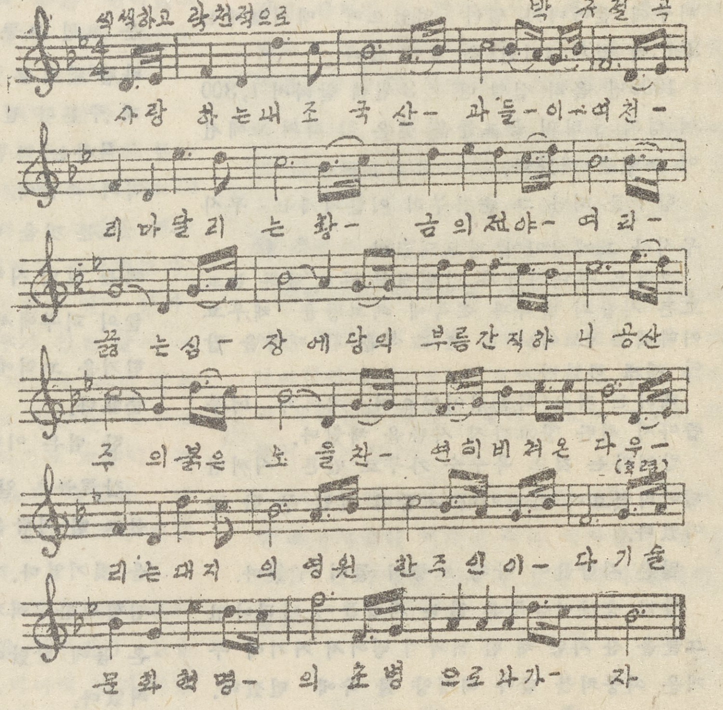
1950년에도 약 60 명의 청년들이 남미주의 브라질과 아르젠틴으로 끌려 가 백인 농장들에서 죄수처럼 가혹한 노예 로동과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는 노예로 되였다.

미제는 또다시 1958년부터 남조선 인민을 대량적으로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노예 시장으로 팔아 넘기려는 《이민》계획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미제의 충실한 주구 군사 통치배들은 새로운 《이민》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들은 자기 상전을 위하여 나라도, 민족도 다 팔아 먹고 있다. 조선 인민은 양키 노예 상인들의 천인 공노할 죄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미제와 그의 앞 잡이 반역 도배들을 이 땅에서 청산해 버릴 것이다.

우리는 대지의 청춘

김 학 연 시
박 주 철 곡



2 불타는 가슴에 용솟는 투지여
대지에 넘치는 청춘의 힘이여
한원의 혁명정신 핏줄마다 굽이치니
준령도 폭풍도 막아서지 못하리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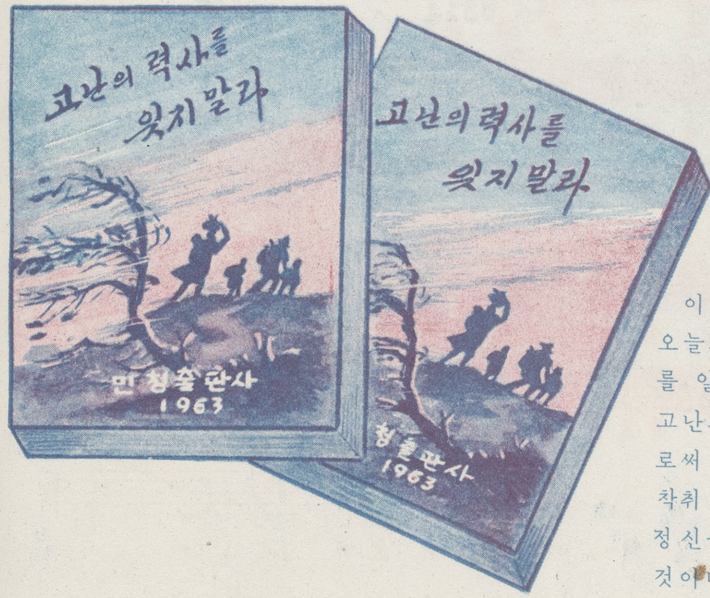


3 로동당 시대의 젊은 세대여
수령의 충직한 아들과 딸들이여
일하며 배우며 농촌진지 다지여
리상도 행복도 이땅에 꽃피우리
(후렴)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전화 38-58, 83-85
주 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 쇄 1963년 3월 15일, 발행 1963년 3월 20일
ㄱ—330173 값 35 전

새로나온 책

고난의 력사를 잊지 말라



이 책은 청소년 학생들로 하여금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게하며 우리의 부모들이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알게함으로써 계급적 원쑤에 대한 증오심과 착취 계급을 반대하는 비타협적 투쟁 정신을 배양함에 좋은 교양 자료로 될 것이다.

이 책에는 해방 전 일제와 예속 자본가 및 지주들이 로동자와 농민을 어떻게 가혹하게 착취하였으며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생활을 하여 왔는가를 이야기하여 주며 지주와 자본가의 악랄성, 잔인성 및 그들의 착취적 본성을 폭로하는 실화들이 수록 되여 있다.

이 책에는 《노예의 쇠사슬 속에서》, 《원쑤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기억하라, 원쑤는 아직 남아있다》를 비롯하여 자본가의 착취적 본성과 간악성을 폭로하는 실화들과 《최 로인의 이야기》, 《우리는 이 기'발을 높이 추켜들리라》를 비롯하여 지주의 본성과 악랄성을 폭로하는 이야기들이 수록되여 있다.

판형 4×6판
페지 250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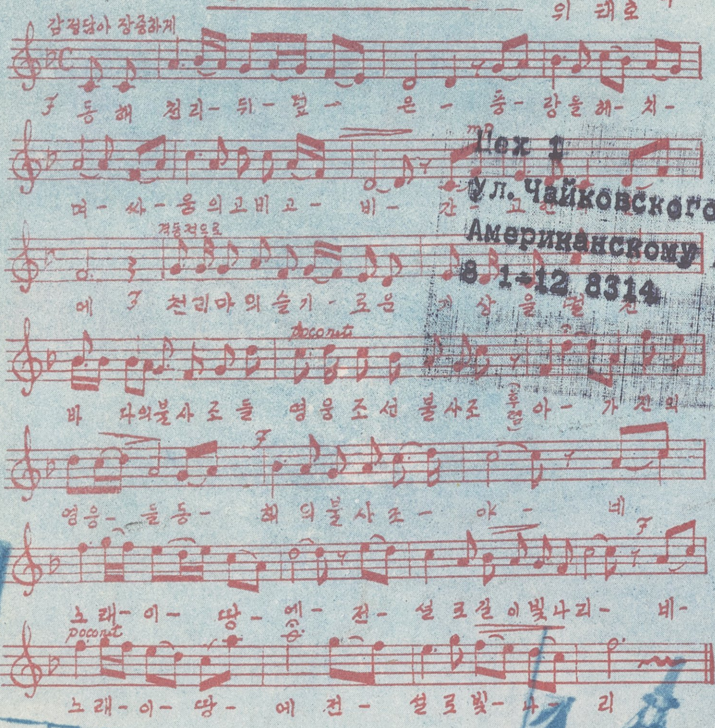
발행, 민청 출판사



남응손 시

동해의 불사조

고인환
위태호 곡



2. 모진 추위 성난파도 바다를 삼켜도
타오르는 마음의 불 끌수 있으랴
진대나무 두드리는 투사의 불씨
죽음을 뛰여 넘어 혁명 동지 구했네
(후렴)

3. 따사로운 당의 빛발 어데나 비쳐여
망망대해 풍파에도 외롭지 않더라
하늘에서 땅에서도 그대를 찾아
얼싸안은 그날은 기어이 왔네
(후렴)

